

202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환경대학원 포용적 계획·정책 연구실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 및 지역공동체 조사

North Korean Defector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ocal Community

결과보고서

박인권, 최고운정, 신채현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고찰	11
1. 주거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	13
2. 지역공동체와 공동체의식	14
3. 문화적응이론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21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및 정착 양상	29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31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양상	37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역공동체	39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	41
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인식	43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활동 참여	44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향성	46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49
1.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분석모형	51
2.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54
3. 문화적응과 지역공동체의 관계	59
제6장 결론	63

■ 참고문헌	67
--------------	----

■ 부 록	73
-------------	----

1. 설문지	75
2. 심층면담 질문지	90
3. 관계자 인터뷰 질문지	93
4. 참여관찰 필드노트	94

표 목 차

<표 1-1> 지역별 거주 현황	5
<표 1-2> 상위 10대 시군구(2016년 12월말 기준)	6
<표 1-3>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 특성	6
<표 1-4>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7
<표 1-5> 심층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8
<표 1-6> 관계자 인터뷰 대상자	8
<표 1-7> 연구 활동별 추진 경과	10
<표 2-1>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14
<표 2-2>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	19
<표 2-3> 문화적응의 네 가지 전략	22
<표 3-1> 정착과정별 지원제도	32
<표 3-2> 정착지원제도의 세부내용	35
<표 5-1> 설문조사 측정항목의 구성	52
<표 5-2> 변인 구성	53
<표 5-3> 다중회귀분석 결과: 물리적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55
<표 5-4> 생활편의시설 이용빈도(월)	56
<표 5-5>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56
<표 5-6> 남한 내 주거환경 만족도	57
<표 5-7> 북한 내 주거환경 만족도	57
<표 5-8>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북한 주거환경 차이와 지역공동체의식	58
<표 5-9> 다중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전략과 지역공동체의식	60
<표 5-10> 문화적응전략의 매개효과분석	60

그림 목 차

<그림 1-1>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및 자살 관련 기사	3
<그림 3-1> 정착지원 체계	31
<그림 5-1> 연구 분석틀	51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3,658명('20. 3월 말 기준)에 이르나¹⁾,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입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 자살률의 2배에 이르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정착 및 도시 공간적 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경제와 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남한 사회 정착의 기본 토대가 되는 주거문제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함.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²⁾이나 주거환경 인식에 관한 연구³⁾, 혹은 사회주의 이념이 북한의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⁴⁾이나 북한 공동주택의 물리적 환경⁵⁾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주민활동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함.
- 도시 공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간적 포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의 주거환경·주민활동과 지역공동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주거환경·주민활동의 계획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거주지를 중심으로 형성했던 공동체 의식, 문화, 활동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들이 현재 남한 내 거주지에서 경험하는 주거문제와 지역공동체와의 단절 및 고립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그림 1-1>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및 자살 관련 기사

<p>살기 고달픈 탈북민 '재입북의 유혹' ... 9년간 28명 넘어갔다</p> <p>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재입북한 탈북민은 28명이다.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수치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사회에서는 “이번에 누가 다시 북한에 갔다더라”는 소문이 심심찮게 퍼진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탈북민은 약 900명에 달한다. (...)</p> <p>탈북민들은 한국에 온 초기 5년이 정착의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때를 놓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 5년간 ‘언어만 통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p>	<p>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p> <p>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자살율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율은 1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국민 자살률 4.5%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 남북하나재단에서 올해 2월 발표한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 (31.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제적 어려움 23.5%, 가정불화 16.7%, 외로움·고독 때문에 14.5%, 이성 문제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p>
---	---

자료: 최지선, 2020.08.07. “살기 고달픈 탈북민 ‘재입북의 유혹’...9년간 28명 넘어갔다”, 동아닷컴(좌); 흥승희, 2020.10.07. “북한 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스스로 목숨 끊었다”, 헤럴드경제(우).

- 1)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2) 최정호, 박선미(201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 요인-경기도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p.71-85.
- 3) 이유진(2016).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밀집 주거지 내 근린환경 인식 차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현수(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p.17-31.
- 5) 김민아(2018).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 연구의 목적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정착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지역 차원의 문제이며, 이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또한 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역량 강화(empowerment)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 강화로 확장되고 있음⁶⁾.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소속감 및 공동체의 형성과 사회갈등의 해소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⁷⁾.
-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의 정치체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정착시 이민이나 난민 연구에서 논의되는 문화적 적응의 과정을 겪음. Berry(1997)는 문화적 지향의 정도에 따라 문화적응전략(acculturation)을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분류했음.
- 윤이진·한기덕(2022)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 개인의 적응역량을 높이는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으며, 사회통합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함. 유엔 경제사회국(DESA)에 의하면, 사회통합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안정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함(설진배 외2, 2014). 윤이진(2019)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자신의 고유한 집단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제도를 수용하고 안정된 생활과 평등한 기회를 영위하고 소속감을 갖고 일반주민과 유대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함.
-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응의 과정과 더불어 소속감과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공동체 형성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주민활동, 지역공동체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거공간에 접목할 수 있는 계획요소의 도출과 남북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형성 방안의 도출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 남북한의 통일, 평화, 공존의 시기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임.

6) 이우영(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7) 허준영(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Vol.21 (1), p.271-304. ; 서유경(2013).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2013-10-30, Vol.21 (2), p.301-327.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북한이탈주민들이 밀집된 4개 지역(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노원구, 강서구)의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단한 면담(후속 질의), 심층면담을 진행함.
-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84.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김신의, 2019),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서울에 7,085명(22.69%), 경기도에 10,398명(33.31%), 인천에 2,960명(9.48%)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⁸⁾

<표 1-1> 지역별 거주 현황(2020년 3월말 기준)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233	2,603	775	255	220	249	141	248	348
여	4,852	7,795	2,185	757	869	826	525	1,030	1,328
합계	7,085	10,398	2,960	1,012	1,089	1,075	666	1,278	1,676
%	22.69	33.31	9.48	3.24	3.49	3.44	2.13	4.09	5.37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32	199	129	149	123	130	73	8,007
여	456	610	488	460	417	367	248	23,213
합계	588	809	617	609	540	497	321	31,220
%	1.88	2.59	1.98	1.95	1.73	1.59	1.03	100.00

자료: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전국 17개 시도 북한이탈주민 거주분포를 분석하여 5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위 10대 시군구를 선별하면, 서울 3개 지역(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경기 6개 지역(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김포시, 안산시), 인천 1개 지역(남동구)임.
- 특히, 인천 남동구는 구 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 출신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그중 신규택지개발지구인 논현 1, 2동이 밀집 거주 지역인데, 남동구의 북한 출신 주민 1,380명 중 1,166명이 논현 1, 2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2년 4월 말 기준).⁹⁾

8) 통일부(2020), op. cit.

9) 이수정, 2014. “집착시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17(2), p.85-126.

<표 1-2> 상위 10대 시군구(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순위	시군구		남	여	계	비율(%)
1	인천	남동구	520	1,337	1,857	6.7
2	서울	양천구	407	745	1,152	4.1
3		노원구	357	763	1,120	4.0
4		강서구	350	645	995	3.6
5	경기	화성시	206	637	843	3.0
6		수원시	172	521	693	2.5
7		평택시	165	462	627	2.3
8		용인시	140	468	608	2.2
9		김포시	143	408	551	2.0
10		안산시	151	387	538	1.9
합계			2,611	6,373	8,984	32.3

자료: 남북하나재단, 2017.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실태보고서: 10대 주요 거주지역편”

- 조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를 포함한 6개 단지이며, 1990년대 사용승인이 난 단지가 4개, 2000년대 사용승인이 난 단지가 2개임.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를 기준으로 반경 400m(도보 10분 거리) 이내로 설정함.

<표 1-3> 조사대상 공동주택단지 특성

	세대수	사용승인(년)	평형(m ²)_전용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단지A/B	1,800세대 /801세대	2006년	39m ² ,46m ²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 휴게시설, 커뮤니티공간/ 문고
공동주택 단지C	2,995세대	1995년	33m ² ,39m ²	관리사무소, 노인정,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 단지D	1,979세대	1991년	32m ² ,39m ² , 49m ²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 단지E/F	1,110세대 /914세대	1992년	34m ² ,39m ² , 49m ²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유치원

2) 연구의 대상

(1) 설문조사 및 간단한 면담

-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내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북한이탈주

민을 눈덩이 표집으로 100명 모집하였음.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4>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성별	여성	80
	남성	20
	합계	100
연령	30대 이하	27
	40대	24
	50대	24
	60대 이상	25
	합계	100
직업유무	무	60
	유	40
	합계	100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45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0
	400만원 이상	15
	합계	100
가족 구성원수	1명	37
	2명	31
	3명	18
	4명	10
	5명 이상	4
	합계	100
주택거주기간	10년 미만	44
	10년 이상 ~ 20년 미만	54
	20년 이상	2
	합계	100
주택규모	15평 미만	24
	15평 이상 ~ 20평 미만	54
	20평 이상	22
	합계	100

(2) 심층면담

- 설문조사 시, 성실히 응답한 참여자 중에서 이웃과의 교제 정도, 주민활동 참여 여부, 성별, 가구 특성, 입국시기, 직업유무, 북한의 거주지역(농촌, 도시) 등을 고려하여 심층면담 대상자를 선정함.

<표 1-5>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직업유무	가구원수(명)	남한거주기간(년)	북한거주지역	비고	
1	강서1	남성	39	유	4	6	도시	자율방범대
2	남동1	여성	31	무	3	4	도시	
3	남동2	여성	44	무	3	16	도시	단지 축제 봉사
4	노원1	여성	63	유	2	16	도시	
5	노원2	남성	65	유	2	14	도시	
6	강서2	남성	51	유	4	16	농촌	자율방범대
7	강서3	여성	48	유	1	15	도시	자율방범대
8	양천1	여성	47	유	2	14	농촌	반찬봉사단
9	양천2	남성	31	무	1	2	농촌	
10	양천3	여성	70	무	1	9	도시	

(3) 관계자 인터뷰

-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의 활동가(활동가A, 활동가B)와 북한이탈주민 밀집 단지 내 주민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활동가(활동가B)를 대상으로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함.

<표 1-6>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경력사항
활동가A	· 하나센터A 근무(9년차)
활동가B	· 하나센터B 근무(13년차)
활동가C	· 공공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장 · 단지 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4) 참여관찰

-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주민활동 중, 공동주택 단지의 마을 축제와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여 주민활동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

3)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심층면담,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참여관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음.
- **설문조사:** 연구 대상자 100명을 모집하여,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총 50문항으로써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거주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근린의 물리적 주거환경, 이웃 간의 상호작용 및 주민활동, 북한에서의 인민반 활동, 문화적응전략, 공동체 의식 등을 질의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통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 요소와 지역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주민으로서 개인의 문화적응 전략이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음.
- **심층면담:**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다양한 연령대 및 거주기간, 거주지역의 대상자 10명을 선정 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심층적인 해석을 위해 설문 문항의 구조를 따라 개인적 특성, 물리적 주거환경, 주민활동, 이웃과의 상호작용, 공동체의식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음.
-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북한이탈주민의 밀집지역의 조사대상인 단지의 물리적 환경을 조사하고, 정착지원시설의 시설현황을 조사하였음. 정착지원기관의 활동가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진행하는 활동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음.
- **참여관찰:**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서 거주하는 단지의 마을 축제와 마을 축제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민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음. 자율방범대 중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이 높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참여하여, 남북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있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음.

4) 연구의 추진 일정

- 주요 연구활동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1-7> 연구 활동별 추진일정

일정	활동 내용
2022.06.13	전문가 자문회의
2022.08.18-19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Pacific Planning Societies)
2022.08.22-2023.01.09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100명), 심층면담(10명, 파일럿조사 4명 미포함)
2022.09.20	콜로키움(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
2022.09.29-10.15	관계자 인터뷰(3명)
2022.10.15., 12.28	참여관찰(공동주택단지 마을축제, 자율방범대)
2022.11.03-05	학술대회(Association of Collegiate Schools of Planning Annual Conference)
2022.11.17-18	학술대회(2022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연합학술대회)
2022.12.16	학술대회(한국주택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고찰



1. 주거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

- 주거환경은 주택과 주거의 차이로부터 이해되어야 함. 주택은 하나의 물리적 객체, 즉 하나의 사물이고 환경의 일부임. 주거는 주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경험이나 정서적 내면을 의미하고, 거주자와 거주하는 장소 간에 맺어진 정서적 측면에 바탕을 둬.¹⁰⁾
- 淺見泰司(2003)은 주거환경(residential environment)을 주거 및 생활 장소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의 총체로, 협의로는 물리적인 주택 주변의 환경을 의미하지만, 광의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함.
- Hooimeijer & van der Knaap(1994)에 의하면, 주거환경은 '활동 공간', '사회 공간' 및 '인식 공간'으로 즉,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활동 공간은 직장, 학교, 쇼핑, 스포츠 활동 참여 등과 같은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반경을 나타냄(Hägerstrand, 1970). 사회적 공간은 친구 및 가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구성원과 상호 작용하는 반경을 나타냄. 인식 공간은 식별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
- 윤호(2010)에 의하면, 주거환경은 주택의 입지와 더불어 거주자와의 상호관계로서 형성된 물리적·정신적 생활영역이며, 개인적인 생활요인과 사회적 생활요인을 포함함. 또한, 주거환경은 인간의 거주환경이며 주택을 중심으로 한 가구의 일상 생활에 관련되는 내·외부환경 조건이라고 함.
- 주거환경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주거환경이 주거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윤호(2010)는 주거환경의 구성요소를 주택환경(내부구조, 방의 수, 실내크기 등 주택 내부적 요인), 주변환경(대중교통의 이용, 상업·문화·교육·의료·공공시설 등의 접근성), 주거비(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의 부담 정도), 하자관리(하자보수에 대한 처리, 사후관리 등), 이웃관계(이웃과의 비공식적 유대,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공식적 참여), 사회적 차별(근린 내의 배제감, 시설사용의 제약, 무시경향, 배타적 기분 등)로 분류함. 관련 연구에서, 이주택(1994)은 주거환경의 변수를, 사회적 변수(이웃관계, 안전성, 프라이버시 등), 물리적 변수(유지관리, 소음, 편리성, 주차시설, 조경과 수목, 미, 주택형태, 주택규모, 실내구성 및 시설, 조망 등), 서비스 변수(대중교통 수단, 어린이 놀이터, 공공시설 등), 근린주구 변수(접근성, 주변 환경, 공해정도, 위치, 학군 등), 개인적 변수(연령, 소득, 직업, 교육수준, 거주기간, 주택소유 형태, 가족 수 등)로 구분함.
- 주거환경의 구성요소에, Marans & Rodgers(1975)는 이웃특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사회적 지위, 생활주기 등을, Miner(1980)는 선택된 주택, 지리적 특성,

10) 김봉준(2007).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향논총, 40, pp.147~166. ; 윤호(2010).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0(41), pp.184-200. 재인용.

주거에 대한 애착도, 이웃의 안정성, 응답자의 배경적 특성 등을 포함함. Campbell et al.(1976)은 연령, 수입, 교육, 직업상태 등을, Morris et al.(1976)은 주위환경, 주거지역, 질 좋은 학교와의 거리, 도로 등을 포함함.

2. 지역공동체와 공동체의식

1)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일상생활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임.¹¹⁾ Hillery(1955)는 “공동체는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하고, 1) 지리적인 영역; 2) 사회적 상호작용; 3) 공동의 유대 혹은 연대가 공동체의 주요한 요소라고 함.¹²⁾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심리·정서적 안정과 유대를 충족하는 정서적 기능을 제공함.¹³⁾

2) 지역공동체의식

- 한정된 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나아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를 형성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공동체의식임.¹⁴⁾
- 공동체의식은, “구성원들의 소속감, 구성원들이 서로 중요하다는 느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의 욕구가 자신들의 상호관여를 통하여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으로 정의됨. 공동체의식은 구성원의식(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의 네가지 요소로 구성됨.¹⁵⁾ Popplin(1979)은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로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자발적 참여의식, 전인격적 인간관계를 말함.

<표 2-1>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선행연구 정리)

-
- 11) 장세훈(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pp.100-134.
 - 12) Poplin, Dennis E.(1979). "The Concept of Community", 「Communities :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신용하 편(1985),「공동체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에 인용된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재인용. 공동체라는 말은, 심성적·정신적 현상(심성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으로,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 단위들(사회적 시각에서의 공동체)로 사용되기도 함.
 - 13) 성정현(2016). 탈북여성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종족화된 낙인'과 탈북여성들의 공동체 형성 및 활동. 한국가족복지학, 2016-09-30, Vol.53, p.79
 - 14) 이라영, 신남수(2009).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3), pp.223-234.
 - 15) McMillan, David W. & Chavis, Davi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86-01, Vol.14 (1), p.6-23.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고찰

구 분	공동체의식 구성요소	비고
Popplin(1985)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	
	공동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자발적 참여의식	
	전인격적 인간관계	
Unger & Wandersman(1985)	사회적 요소(social component)	정서적인, 유효한 지원과 사회적 네트워크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	물리적 환경의 인지 지도와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감정적 요소(affective component)	정서적 애착
MaMillan & Chavis(1986)	구성원의식	경계, 정서적 안전, 소속감과 정체성, 개인적 투자, 공통의 상징체계
	상호영향의식	영향력, 응집력과 순응
	강화: 욕구의 충족과 통합	지위, 역량, 공유된 가치관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	접촉, 상호작용의 질, 공유된 경험, 정신적 유대
Chavis & Wandersman(1990)	주변 환경에 대한 개인적 인식	
	환경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	
	통제와 강화(empowerment)	
	감정 근린활동에의 참여	
Plas, J. M. & Lewis, S. E.(1996)	구성원의식	소속감
	욕구 충족	
	공유된 정서적 연결	
	공유된 가치와 경험에 대한 충성도	
Kingston, Mitchell, Florin & Stevenson 등(1999)	근린 풍토의 인식	구성원의식
	근린의 환경에 대한 거주자들의 조절에 대한 인식	영향의식
	근린 행태	사회적 상호작용
	근린 조직에의 참여	
Obst, Smith(2002)	구성원의식	
	상호영향의식	
	강화: 욕구의 충족과 통합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 의식적 동일시	
Kim & Kaplan(2004)	장소애착	공동체 만족, 연대의식, 소유의식, 장기적 통합
	공동체 정체성	유일성/차별성, 연속성, 의미, 조화성, 응집력
	사회적 상호작용	인접성, 우연한 만남, 공동체 참여, 사회적 지원
	도보주의(공동체 내를 걸기로 결정)	보행성, 도보 근접성, 대중교통, 도보정도/거리활동
홍형욱 &	소속감 및 상호영향의식	
	충족감	

구 분	공동체의식 구성요소	비고
채혜원(2004)	연대감	
	정서적 친밀감	
Tartaglia(2006)	장소애착	
	욕구충족과 영향의식	
	사회적 연대	
최열 & 공윤경(2007)	공동체애착	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애착
	정체성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상호작용	구성원간의 신뢰와 믿음
이라영 & 신남수(2009)	개인의 귀속의식	소속감, 구성원감정, 일체감, 우리 의식
	타인과의 유대감	연대감, 정서적 연계, 상호영향의식, 상호부조정신, 전인적 인간관계
	공동체에 대한 만족	만족감, 충족감, 애착심, 자부심
	참여의식	적극성, 자발성, 역할의식, 주제성, 봉사의지
	장소 정주성	지속성, 영주의지, 장소애착

- McMillan & Chavis(1986)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을 구성하는, 구성원의식(Membership)은 소속감을 느끼거나 개인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으로 경계(boundaries), 정서적 안전(Emotional safety), 소속감과 정체성(sense of belonging and identification), 개인적 투자(Personal investment), 공통 기호 시스템(common symbol system) 등 다섯 가지 속성이 있음. 상호영향의식(Influence)은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영향력과 구성원에 대한 공동체의 영향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양방향 개념임. 구성원은 자신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는 공동체에 더 끌리고, 공동체는 집단 응집력(group cohesiveness)과 순응(conformity)을 얻도록 구성원에 영향을 미침. 이는 결합의 강도를 나타냄. 욕구의 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은 행동 동기로서의 강화(reinforcement)로 공동체 내 구성원의식을 통해 받은 자원으로 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될 것(보상)이라는 느낌임. 욕구충족과 통합은 강한 공동체의 주요 요건으로 지위(status), 역량(competence), 공유된 가치관(shared values) 등의 요소가 있음.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은 구성원들이 공유해온 헌신과 신념이며 역사, 공통의 장소,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임. 공유된 정서적 연결의 원리는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 상호작용의 질(Quality of interaction), 사건 종결(Closure to events), 공유된 사건 가설(Shared valent event hypothesis), 투자(Investment), 명예와 굴욕의 효과(Effect of honor and humiliation on community members), 정신적 유대(Spiritual bond)가 있음.¹⁶⁾

16) McMillan, David W. & Chavis, David M.(1986)에 의하면, 공유된 정서적 연결의 관점에서, 강한

-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지역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 관련 태도, 참여 관련요인, 주거 특성요인 등이 있음.¹⁷⁾ 거주자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즉 성별, 교육, 직업, 수입 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차이가 남.¹⁸⁾ 주택 소유 유무나, 거주기간, 주거 면적 등에 의해서도 다르게 나타남.¹⁹⁾
-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의 형성, 유지, 강화, 참여에 영향을 미침(McMillan & Chavis, 1986; 장세훈, 2005). 따라서 공동체의식의 측정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형성 여부와 유대의 정도를 알 수 있음.

3)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 관계

- 이라영·신남수(2009)는 1) 개인적 특성(연령, 학력, 생활주기, 가족구성, 소득, 이전 주거, 출신지, 이사경험), 2) 주거 일반특성(소유유형, 거주기간, 주호규모, 거주층), 3) 물리적 환경(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호수밀도, 대지면적 준공연도, 층수), 4) 환경심리적 특성(‘공용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지환경 및 공공환경에 대한 만족도’, 쾌적성, 정체성, 영역성, 상징성, 경계성, 과밀, 길 찾기 쉬운 구조 등), 5) 상호작용(‘거주하는 주거단지의 교제 정도’나 ‘교제 만족도’, 이웃 관계의 단계별 ‘친하게 지내는 이웃 수’, 동네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 그리고 거주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나 ‘동네의 범위’ 등)을 영향요인으로 사용함. 연구결과에 의하면, 주택소유유형이 자가, 농촌출신인 경우 공동체의식이 높으며, 친한 이웃수, 주민 동질성, 활동참여정도, 교제수준, 근린인식범위가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환경심리적 특성 중 쾌적성, 경계성, 길 찾기 쉬운 구조, 단지환경만족도, 공공환경만족도가 (+)의 상관관계, 과밀감이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Kim, J. & Kaplan, R.(2004)는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Kentlands(도시주의 개발지역, Neighborhood Unit과 유사²⁰⁾)와 Orchard Village(전통적인 교외 개발지역, 쿨데삭 구조)를 비교하여 분석함. 즉, 지역사회의 물리적 특성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공동체의식은 장소애착,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 보행성(공동체 내를 걷기로 결정)으로 구분하였고, 물리적 환경은 1) 부지개발 측면(주거밀도, 블록크기, 커뮤니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 공유하는 중요한 이벤트와 해결방법, 구성원을 명예롭게 여길 기회, 공동체에 투자할 기회, 구성원들 간의 정신적 유대감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임.

17) 이라영, 신남수(2009).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3), pp.223-234.

18) 천현숙(2001).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9(1), pp.143-172.

19) 김종재(1993). 도시민의 정주 커뮤니티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도보 거리에 자체 초등학교, 커뮤니티 센터, 공원 및 상점이 있는 주거 지역임.

티의 전체 크기), 2) 배치계획(커뮤니티의 전체 레이아웃, 블록의 주택 배치), 3) 순환(거리폭, 차고 위치, 노상주차), 4) 편의시설(클럽하우스/여가시설), 5) 건축설계(건축 스타일, 주택의 전반적인 디자인 품질) 등의 17가지 특성을 반영함. 자연적 요소(공공녹지, 보도, 호수, 습지 등)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침.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별로 보면, 건축스타일과 디자인품질이 장소애착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환경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나 클럽하우스/여가시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음. 보행성과 관련해서는 자연요소, 전체 레이아웃 및 전체 크기가 영향을 미침.²¹⁾

- Plas, J. M. & Lewis, S. E.(1996)는 플로리다주 Seaside²²⁾에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의식과 환경요인의 관계를 정성적 방법으로 연구함. 공동체의식은 구성원, 욕구 충족, 공유된 정서적 연결, 공유된 가치와 경험에 대한 충성도로 구분하였고, 환경요인은 도시디자인, 건축계획, 도시계획 철학으로 분류함. 도시디자인의 세부 요소는, 1) 거미줄처럼 모든 집을 지나는 모래 보도, 2) 중앙 공공장소에서 3/4마일(일반적인 도보 거리) 이내 모든 집의 배치, 3) 수영장, 공원, 테니스코트의 가용성 및 위치, 4) 식료품점, 쇼핑몰, 회의 및 모임 장소의 위치, 스타일, 분위기, 5) 해변 파빌리온의 위치 및 배치, 6) 집 근처 주차를 어렵게 하여 확보한 보행중심의 거리임. 건축계획 요소는 1) 넓은 porches(현관), 2) 거리에서 약 20피트 이내에 위치한 porches임. 도시계획 철학은 공동체 의식의 조성임. 도시디자인은 정서적 연결에 영향을 미치고, 건축계획은 이웃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함으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계획 철학은 대부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나, 도시계획의 의도가 사람들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인식하며 이는 소속감과 정서적 연결에 영향을 언급함.²³⁾
- 최열, 공윤경(2007)은 공동주택의 단지설계요소와 거주자특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부산광역시 45개 공동주택단지 주민 466명을 설문조사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함. 종속변수는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인 공동체애착(구성원들의 공동체에 대한 애착), 정체성(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상호작용(구성원 간의 신뢰와 믿음)으로 하고, 독립변수는 단지설계요소에 대한 평가(전체 단지배치, 동선 체계, 단지 주출입도로, 내부 도로체계, 조경 및 녹지, 주민생활공간, 주민운동공간, 보안 및 방법), 아파트특성(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건설회사, 세대수, 층수, 준공년수), 가구특성(성별, 연령, 학력, 소득), 주택특성(주택규모,

21) Kim, J. & Kaplan, R.(2004)는 켄틀랜즈 535명, 오차드 빌리지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인터뷰는 켄틀랜즈 106명, 오차드 빌리지 40명 실시함. 17가지 특성은 1)주거밀도, 2)자연요소(호수, 습지, 녹지), 3)보도와 집 사이의 거리, 4)건축 스타일, 5)블록 크기, 6)클럽 하우스/레크리에이션 시설, 7)전체 레이아웃, 8)가로수, 조경 9)전체 크기, 10)주택 배치, 11)거리폭, 12)차고 위치, 13)노상 주차, 14)lot(획지) 크기, 15)주택 유형의 혼합도, 16)주택의 전반적인 디자인 품질, 17)거리 레이아웃 임. 공동체의식의 4개 구성요소별로 평균 내림차순으로 나열됨.

22) 플로리다주 시사이드는 공동체의식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도시임.

23) Plas, J. M. & Lewis, S. E. (1996)는 근로자 39명, 거주자 및 세입자 86명, 총 125명을 인터뷰 함.

거주기간, 소유유형), 근린인식(근린범위, 이웃관계)임. 단지설계요소 중에서는 전체 단지배치, 조경 및 녹지, 아파트 특성에서는 건설회사, 층수, 준공년수, 그 밖의 요소 중에서는 연령, 이웃관계가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홍형욱, 채혜원(2004)는, 주상복합건물의 공유공간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를 서울 부도심의 초고층주상복합건물(40층이상) 4개단지의 주민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주민공유공간을 기초생활지원(공동창고, 세탁실, 게스트실), 공동체지원(커뮤니티홀, 휴게실/가족실, 클럽하우스), 운동공간(샤워장,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헬스장, 산책로, 옥외정원), 문화와 복지(멀티미디어실, OA룸, 레크레이션실, 유아놀이방, 청소년 독서실)고 분류했으며, 분류별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 간의 상관관계의 결과, 공동체지원공간이 주거단지 내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문화와 복지공간이 주거단지에 소속해 있으므로 느끼는 충족감은 주지만,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정서적 친밀감은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표 2-2>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선행연구 정리)

구분	분류		세부요소
Plas, J. M. & Lewis, S. E.(1996)	환경요인	도시디자인	도보체계, 주택배치(중앙 공공장소와의 도보거리 내), 여가시설(수영장, 공원, 테니스코트) 가용성 및 위치, 편의시설(식료품점, 쇼핑몰, 회의·모임 장소)의 스타일 및 위치, 휴게시설(파빌리온)의 위치 및 배치, 보행중심 거리(주차불리)
		건축계획	현관(porches)의 위치 및 크기
		도시계획 철학	New Urbanism(공동체의식 조성)
Kim & Kaplan(2004)	물리적 환경	부지개발 측면	주거밀도, 블록크기, 커뮤니티의 전체 크기, 획지(lot) 크기, 주택유형의 혼합도, 자연요소(호수, 습지, 녹지)
		배치계획	커뮤니티의 전체 레이아웃, 블록의 주택 배치, 거리 레이아웃, 가로수·조경
		순환	거리폭, 차고 위치, 노상주차, 보도와 집 사이의 거리
		편의시설	클럽하우스/여가시설
		건축설계	건축 스타일, 주택의 전반적인 디자인 품질
홍형욱 & 채혜원(2004)	공유공간 만족도 (초고층주 상복합)	기초생활 지원	공동창고, 세탁실, 게스트실
		공동체지원	커뮤니티홀, 휴게실/가족실, 클럽하우스
		운동공간	샤워장,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헬스장, 산책로, 옥외정원

구 분	분류		세부요소
최열 & 공윤경(2007)	단지설계 요소(공동주택)	문화와 복지	멀티미디어실, OA룸, 레크레이션실, 유아놀이방, 청소년 독서실
		단지설계 요소 평가	전체 단지배치, 동선 체계, 단지 주출입도로, 내부 도로체계, 조경 및 녹지, 주민생활공간, 주민운동공간, 보안 및 방법
	거주자특성	아파트특성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건설회사, 세대수, 층수, 준공연수
		가구특성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주택특성 근린인식	주택규모, 거주기간, 소유유형 근린범위, 이웃관계
이라영 & 신남수(2009)	장소적 특성	물리적 환경특성	정량적 특성 : 세대수, 건폐율, 호수밀도(세대수/ha), 대지면적, 경과연수, 최고층수, 주거동수 환경계획요소 : 보차체계, 내부 도로체계, 단지내 도로 관통여부, 외부공간(휴게 및 놀이공간) 유형, 동 진입기법, 동 유형, 동 배치 유형, 동 평면 형식, 층수 구성, 주호규모 구성, 주차장 유형
		환경심리적 특성	시설만족도(공용시설, 복지시설), 환경만족도(단지환경, 공공환경, 공원/녹지 접근성), 브랜드만족도, 심리적 인지(쾌적성, 영역성, 경계성, 정체성, 과밀감, 접근성, 길찾기 쉬운 구조)
	상호작용	근린 상호작용	주민 교제정도(교제수준 인식정도, 교제 만족도), 친한 이웃 수,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 동질성 인식, 이웃과의 교제동기, 친한 이웃 위치, 근린인식범위
		시설사용 및 교류장소	가족의 주요사용시설, 이웃과의 교류장소
	거주자의 공동체적 태도	-	공동체 인식태도, 참여의사, 단지인식정도
	거주자의 배경	개인적 특성	연령, 가족구성(가족수), 학력, 직업, 가족소득수준, 생활주기(만자녀 기준), 이전거주지(주택유형), 이사경험, 주부 출신지(농촌,도시), 자가용 유무
		주거 일반 특성	주택 소유 유형, 거주기간, 주호규모(평형), 거주층수

3. 문화적응이론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1) 문화적응이론

(1) 문화적응의 개념

- 문화적응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문화 접촉 상황에서,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며 탄생한 개념임.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내에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 남한 내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정착해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됨.
- Redfield 외 (1936)는 문화적응을 문화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 정의함. 문화적응은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용어로서 상호집단을 하는 두 집단 모두에 해당되나,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많은 변화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임(Berry, 1990). 후에 심리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문화적응은 Berry(1997)에 의해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을 포함한 개인수준에서의 변화로 개념화됨. Graves(1967)는 이러한 문화적응을 집단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문화적응(acculturation)과 개인수준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화적응(psychological acculturation)으로 구분함.²⁴⁾

(2) 문화적응집단

- 문화적응 집단은 Berry & sam(1997)에 의해 이동성(mobility)과 자발성(voluntariness) 그리고 영속성(permanence)을 기준으로 분류가 이루어짐.
- 이동성은 자신이 새로운 문화로 옮겨갔느냐 새로운 문화의 사람들을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이고, 자발성은 문화적 이동이 자발적이었는가와, 영속성은 얼마나 오래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살게 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됨.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태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자발성'을 기준으로 문화적응집단을 분류함.
- 자발적 문화적응 집단에는 이민자, 체류자, 관광객이 해당되며, 비자발적 문화적응 집단에는 난민, 토착민, 민족문화집단이 해당됨.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은 이민자와 난민의 지위 모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민자는 자발적으로 장기간 새로운 문화로 옮겨가서 다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을 일컫음. 이들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체류자, 관광객과 달리 장기적으로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게 됨에 따라 심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적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난민은 문화적응의 여러 측면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집

24) 정진경 &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단임. 그들은 비자발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착하였으며, 장기간 머무르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기도 함. 또한 문화적응 이전의 경험이 매우 열악하여 빠른 적응이 매우 어려운 형편임. 난민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 이는 난민들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²⁵⁾

(3) 문화적응의 접근

- Gordon(1964)의 단일 차원적 접근에 따르면, 개인은 강한 원문화 정체성에서 강한 주류문화 정체성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가정함. 이에 원문화의 가치와 태도, 행동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문화적응으로 봄.
- Berry(1980, 1990, 1992, 1997)는 이차원적 접근을 주장했는데, 그는 문화적응을 원문화와 주류문화의 정체성이 독립적으로 변하는 과정으로 원문화에서 형성된 정체감을 포기하지 않고도 주류문화의 행동과 가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최근 논의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 지원하며 원문화와 수용국 문화의 상호 변화를 통한 통합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시각이 있음. 이에 문화적응 상태를 두 가지 차원의 네 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함.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전략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전략 선택이 바뀔 수 있음. 그 중 이민자들은 통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표 2-3> 문화적응의 네 가지 전략

		차원 1 : 문화정체감 및 특성 유지	
		긍정	부정
차원 2: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긍정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부정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2)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1) 일반적 특성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이루어지고 있으

25) 정진경 &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며, 이들이 경험하였던 심리적 상처 치유는 관심받지 못함(정진경·양계민, 2004).

- 탈북자는 북한에서의 다양한 외상 경험과 탈북 과정, 남한 입국 이후 스트레스 등이 가중되어 심리적 적응상 어려움을 경험함. 서비스 수요자인 탈북자들이 전문적인 도움 요청을 회피하고 자기은폐 경향을 갖고 있어, 탈북자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실무자들의 시행착오가 반복됨(김은경·권정혜, 2009).
-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문화에 익숙해지는 데 최소 2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4~5년 정도 지나야 남한 사람과 친숙해짐(이우영 외, 2000).
- 윤인진 외(2010)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박해, 개인적 문제가 큰 순으로 드러남.

(2) 문화변용상 특성

-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서 겪는 어려움, 자신들에 대한 남한의 인식혼란과 상호모순적 대응방식, 스스로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문화충격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함(Jeon, 1997; Jung, 2004; Kim, 2005; Lee, 1997; Lee, 2003).
- 북한이탈주민은 선주민인 남한주민과 혈통을 같이하는 동포인 동시에 억압을 피해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한 난민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은 여타 외국인 이주민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북한이탈주민을 이주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이들의 사회적응과 문화변용이 과정과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여타 이주민 집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줌(윤인진, 2012).
-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 정착 과정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문화적응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적응수준의 차이가 나타남(홍순혜·이숙영·김선화, 2009)

(3)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 신행우 외(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심리적 적응성’과 관련된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더 많이 발견되었음.
-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나이가 50세 이상일 때, 기혼일 때, 중졸 이하 학력자일 때, 직업에 불만족할 때, 월수입이 50~99만원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고, 동거가족이 있을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드러남(김

종경·양영희, 2011).

- 남한 내의 문화적응 척도를 본 연구에서는 남한문화적응은 입국 및 탈북 연령이 낮을수록, 남한거주기간, 남한거주비율, 남한 교육기간 전체와 남한 공교육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 성인의 경우, 4가지 문화적응 전략 중 동화 유형이 다른 유형 보다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임(이은산, 2015).
- 북한이탈 청년의 문화적응은 부분통합, 부분분리, 동화 유형으로 분류됨. 그 중 동화 유형은 가장 낮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보임. 또한 동화 유형이 부분분리보다 남한 공동체지지 수준이 높았으며, 부분통합은 가장 높은 일상적 차별감을 보임. (한나 외, 2017)

(4)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수준

-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살지 못하여 떠났다는 점에서 난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부분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주하였다는 점에서 이민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이주민은 자신들의 고유한 원문화를 가지고 이주사회에 들어가며, 문화충격을 겪으며 문화적응과 갈등, 수용과 배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됨. 한 개인이 이주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체성을 잘 수용하여 능동적인 내면화가 이루어질 때 이주사회에서의 적응력이 제고될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수준은 그들의 태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태도에는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적응 수준이 영향을 미침.

가) 심리적 적응

- 난민의 상당수가 초기 정착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함. 이는 이주과정에서 가족이산이 발생한 경우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크게 작용함. 탈북자들의 심리적 적응 수준은 대체로 보통 수준임.
-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주자들은 심리적 문화적응 전략으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주민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주류 문화에 순응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사적 영역에서는 자신들의 원래 고유 문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임(채정민, 2003).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에 인구통계학적, 사회 지각적, 성격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그리고 그 적응 기제는 독특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채정민, 2003).

나) 경제적 적응

- 이주자들과 난민들의 경제적 정착에는 성별, 진입효과, 교육수준, 문화적 차이가 영향을 미치며, 자영업과 이주민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 이주민들은 이주사회에서 실업상태 혹은 이전의 직업보다 낮은 하향적 신분이동을 경험하게 됨. 대개 여성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더 낮은 신분의 직업에 큰 저항감 없이 임하나, 남성들은 하향취업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임.
- 진입효과(entry effect)는 언어 문화적 차이와 정착국가가 이주민 자국에서의 경력, 학력을 인정하는지 여부, 이주민의 외모가 주류집단과 비슷한지, 이주사회에서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따라 영향을 받음. 이러한 진입효과는 이주민의 정착지 동화효과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궁극적으로 토착민과 같은 경제적 성취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도 함.
- 이주지에서의 교육수준과 정착지에서의 거주기간 또한 이주민의 소득 혹은 직업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다) 사회적 적응

-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나 문화에 대한 적응임. 이주전 사회와 정착해야 할 사회가 완전히 다른 문화권인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 적응하기 어려워 함. 새로운 사회적 가치나 문화에 대한 적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세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정착된 곳의 문화의 이전 경험정도에 따라 그 심리적 충격의 차이가 있고,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 거주자가 농촌 출신의 무학인 사람들보다 문화적 충격을 적게 받았음을 볼 때, 난민의 사회적응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관관계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윤인진 외, 2004, 재인용)
- 남한에 연고가 없는 탈북자들은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음. 탈북자의 사회활동으로 가장 활발한 것이 종교활동임. 남한 선교사들과 목사들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기독교로 귀화함(윤인진 외, 2004).
- 단체적 측면 외에도 개인적으로 직장 동료나 남한 출신의 친구 및 이웃주민들을 통해서 여러 일상적인 정보와 지식 및 정서적 지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나, 실제로 그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웃주민을 통한 지원여부도 아주 미미함(윤인진 외, 2004)

라) 성별에 따른 차이

-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성비는 여성 75%, 남성 25%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음. 여성입국자들 중 상당수는 중국에서 장기체류 과정을 거치며, 여성입국자들은 남성과 다른 경험을 갖고 있음.

- 여성 이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사회 문화적 역할을 취하게 됨. 또한, 일부 여성들에게는 이주가 자신의 이전 체류국에서는 갖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희망과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를 주기도 함.
- 다른 이주민과 다르게 북한이주자는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여성의 취업률이 훨씬 낮음. 또한 직업활동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이금순, 2006).
- 문화적 적응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이 남한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하는 경향이 있음(이금순, 2006).

마) 종교

- 북한이탈주민에게 종교는 남한 내에서 그 이상으로서의 많은 역할을 기능하고 있음. 탈북자들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는 주로 종교단체와 탈북자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탈북민의 종교 중 62.3%가 기독교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종교의 목적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입국과정에서의 도움 때문' 순으로 나타남
- 교회를 제외하고 탈북자들이 남한주민들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모임과 단체는 별로 없음. 남한주민들과 일차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결국은 동료 탈북자들끼리 어울리게 됨. 사회적응 초기에는 탈북자들이 서로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남한주민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지만,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자연스럽게 탈북자들끼리 어울리는 양상이 나타남(윤인진 외, 2004).

바) 주거형태 및 주거환경

- 공간적 배제의 형태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을 보내게 되는 지역사회에서의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인한 사회부적응 문제를 호소함.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보의 주거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함(한지은, 2017).
- 북한에서의 주거단지는 인민반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혼합된 공간임. 특별한 사유 없이는 한 곳에 오래 거주하며, 이로 인해 이웃 간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게 됨(한지은, 2017, 재인용).
- 북한이탈주민들은 관계중심적인 지역사회 경험을 가지고 왔으나, 남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문화적 단절을 경험하며, 과거 집단의 일원으로 느끼던 강력한 소속감의 경험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서의 좌절감과 소외감이 증폭됨(한지은, 2017, 재인용).

- 북한이탈주민은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의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배정 받음. 원칙적으로 임대아파트에서 남한생활을 시작하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처음 사회에 정착할 당시 배정받은 곳에서 계속 살게 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임대아파트 단지가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탈북자들이 한 지역에 집중되기도 하는 현상이 발생함.
- 탈북자 가족이 일정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탈북자 간의 관계 형성이 용이하게 되어 사회정착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고립감을 덜어줄 수 있으나, 다른 주민들과의 이웃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 또는 사회연결망의 취약 등의 문제가 발생함(윤인진 외, 2004).
- 윤인진 외 (2004)의 연구에 따르면 남한생활만족도에는 가족관계, 종교활동, 주거환경, 이웃관계, 자녀교육, 사회활동참여, 정신적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 여가활동 순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여기서 주거환경은 3번째로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주거환경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및 정착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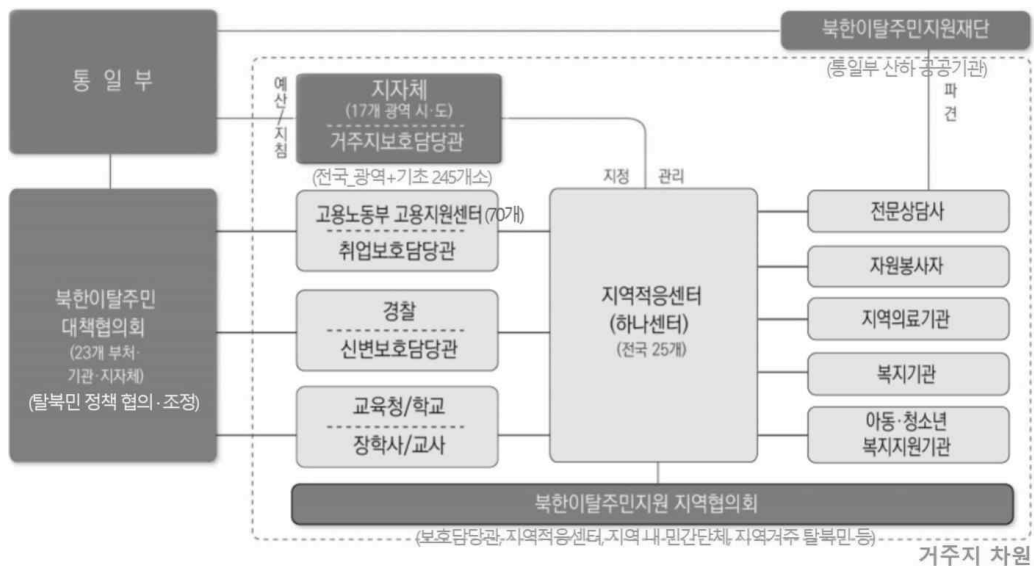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년 제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5년 이후 수립)²⁶⁾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정착을 지원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 법적 정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임.²⁷⁾ 통일부는 헌법 제3조²⁸⁾에 의거해, 북한이탈주민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상이한 문화와 체제 아래 생활하였다는 점에서 다문화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지만 다문화가족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설명함²⁹⁾.

1) 정착지원체계

- 정착지원정책은 정부(통일부, 남북하나재단)-지자체(보호담당관)-민간(지역적응센터, 지역 민간단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됨.

<그림 3-1> 정착지원 체계



자료: 통일부(2021).「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p.14.

26) 6대분야, 24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제3차 기본계획(2021~2023)이 시행중임. 6대분야는, 1)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제1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 2)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체계 내실화, 3)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4)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5)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6)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임.

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1항

28)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29) 통일부(2021).「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p.8.

2) 정착과정별 지원제도³⁰⁾

- 정착지원제도는 하나원 재원 중의 초기 정착지원과 거주지 전입 후의 거주지 보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표 3-1> 정착과정별 지원제도

보호요청 및 국내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입국 지원
국내입국 (국정원, 하나원)	조사 및 임시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후 국정원이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조사 및 긴급한 치료 등 임시보호조치 실시 ·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이송
	보호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 보호결정(세대단위 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응교육(12주, 400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 지원 등
거주지 전입	거주지 보호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안전망 편입(생계·의료급여 지급) ·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 지역적응센터(전국 25곳) 지정·운영 : 지역적응교육, 상담, 생활정보제공 등 · 정착도우미 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86명(정원기준)

자료: 통일부(2021).「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p.15.

(1) 지원제도 세부내용

가) 초기 정착지원(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1999년 개원)

-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신고 지원, 정착금 지원, 주거 지원
- 하나원 사회적응 교육(12주) : 정규 프로그램(400시간)³¹⁾,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371시간), 연령 및 성별을 고려하여 8개반(영아반, 유치반, 초등반, 청소년

30) 통일부(2021), op. cit.를 주로 인용함.

31) 정규 프로그램은, 정서 안정 및 건강증진(28h), 성평등 관점 통합교육(17h),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204h), 우리 사회의 이해 증진_시장경제적응, 소비생활, 사회보장제도, 현장체험 등(106h), 초기 정착지원(45h)이며, 자율참여형 보충 프로그램(371h)은 일과 전후나 주말에 진행되며 언어, 영어, 운전, 컴퓨터 등이 있음.

반, 성인남성·여성반, 남성·여성경로반)으로 운영함.

- 정착금 :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정착금 기본금은 하나원 수료시 일부, 거주지 전입 후 1년 이내 분기별로 분할 지급되고, 정착금 가산금은 사회진출 1년 이후 남은 거주지 보호기간 동안 분기별 분할 지급됨.
- 주거 지원(주거알선, 주거지원금) : 최초 거주지 전입시, 임대주택 알선 및 주거지원금 지원함. 거주지 전입 후, 공공주택 신청 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이 됨. 임대주택 알선 진행방법은, ①하나원에서 희망지역을 접수 ②하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임대주택 알선을 요청하여 거주지 전입 전까지 주택배정 완료함.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거주지 보호기간(5년)의 종료 후 지급됨(조기지급 사유 발생 시 지급 가능). 주거 지원을 받은 후, 2년간 임대주택 계약사항을 변경(계약 해지, 임차권 변경 등)할 수 없도록 임대주택 특약 체결함(계약자, 공공주택사업자, 거주지보호담당관이 날인)³²⁾. 임대차계약 해지 시, 거주지보호담당관에게 발급받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서를 첨부해야 함.
- 임대주택 알선 기관(LH, SH)³³⁾에 따르면, 희망지역, 주택유형(법률로 규정된 국민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주거지원금에 의한 임대보증금 제한을 충족하는 공가에 배정함. 거주지 보호 뒤 임대보증금이 개인에게 지급됨(특약기간인 2년 이후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음). 기준에 따른 배정으로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을 고려한 배정은 아님³⁴⁾.

나) 거주지 보호

- 거주지 적응 지원(주민센터_공공부조,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역협의회), 취·창업지원(취업보호담당관, 장려금, 자산형성제도_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학비지원, 학력인정_북한에서 이수한 학력 인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남북통합문화센터
- 거주지 적응 지원 : 하나원 재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최초 전입일이 포함된 달부터 모든 급여 지급 개시(하나원 재원 중에는 의료급여만 지급됨). 생계급여·의료급여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사람(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의 범위에서 특례가 적용됨³⁵⁾. 국민연금의 경우, 만 50

32) 장인숙, 박희진, 윤설아(2017). 「북한이탈주민 주요 거주지역 심층연구」, 서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p.15. 장인숙 외(2017)에 의하면, 초기 정착과정에서 주거분실을 예방하기 위함.

33) LH 주거복지기획처 건설임대공급부, SH 공공주택부가 담당하며, LH의 경우는 하나원에서 LH 주거복지기획처에 요청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신청한 희망지역의 지역본부와 지사의 지역 배정담당자를 거쳐서 배정됨.

34) 북한이탈주민의 밀집지역을 고려한 배정이 아님에도, 인천 남동구 논현동, 양천구 목동 등 밀집 임대주택단지가 존재하는 이유로,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거주 희망지역(1지망, 2지망)을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곳을 주로 기재하고, 배정되는 평수와 임대보증금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35)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특례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정착금 제외, 부양

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가입기간이 5년 지나면 노령연금 수급 가능함.

- 거주지보호담당관(광역·기초 지자체) : 임대차 특약·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생활실태조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적응센터 지정 및 운영,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취업보호담당관(고용노동부) : 전국 7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담당함.
- 신변보호담당관(경찰서) :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함³⁶⁾.
- 지역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설립됨. 2001년(서울 노원구)부터 운영되어, 2021년 7월 기준 132개 지역협의회가 활동 중임.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2010년 설립) : 통일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취업 및 고용촉진을 통한 자립 실현,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생활실태 조사, 남북한 주민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 거주지 전입 이후 정착금 지급(미래행복통장, 교육지원금, 장애·장기치료, 제3국 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남북한 주민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해 남북한주민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 및 민간단체 공모사업도 진행함. 2010년부터 전문상담사 제도³⁷⁾를 운영하여,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2010년 운영) : 지자체는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 생활정보제공 · 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기관, 단체, 시설)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함³⁸⁾. 하나원 퇴소 시 신변인수, 초기 집중교육(8일, 50시간)³⁹⁾ 및 사후지원을 하고, 정착도우미 제도 운영함. 정착도우미는 초기 거

의무자기준 미적용이 있음. 단, 근로능력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하여 1인을 추가한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급함. 예를 들어, 21년도 생계급여(1인가구) 특례 소득인정액은 926,424원, 일반수급자 소득인정액은 548,349원임. 21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_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_40%, 주거급여_45%, 교육급여_50% 이하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의 특례기준(중위소득 40%)과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중위소득 50%, 취업특례 160%)가 서로 상이함.

36) 이우영(2003)에 의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를 배정받은 후 일정기간 임대차 파트 계약, 이사, 취업, 취학, 생활지도, 상담 등 중요한 후견인 역할을 담당함. 출처: 이우영(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37) 남북하나재단과 전국 지역적응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함. 전국 79명(2021년 6월말 기준)의 전문상담사가 근무함.

38)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 2.

39) 기본교육프로그램(상담, 실생활 현장체험_휴대폰 사용, 정보활용, 은행 금융서비스 활용 등의 경제현장체험, 법률교육, 생활속 소비자 종합정보, 주택관리 및 정착지원제도 소개, 취업교육_구직정보, 모의 면접, 취업현장 방문, 여가프로그램, 심리·정서 집단상담)과 지역특성화 프로그램(교통카드 활용, 주거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 및 정착 양상

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⁴⁰⁾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25개 지역적응센터에 550여명(2020년 12월 기준)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중임.

- 정착도우미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사업 위탁예약서’를 체결한 각 지역의 기관(대한적십자사, 종합복지관, 하나센터 등)에서 수시로 모집함.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함⁴¹⁾. 활동 기간은 보통 6개월 내외이며 은행이용 방법, 인터넷 사용법, 휴대폰 구입 등부터 시작해서 남북 문화차이 설명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까지 함께 함.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활동 내용은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과 친구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관계를 돕는 역할을 함.⁴²⁾
- 남북통합문화센터(2020년 개관) :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설립함. 통일부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요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문화활동 종합지원, 남북주민 소통문화 프로그램(남북생애나눔 대화서비스 등),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임.

<표 3-2> 정착지원제도의 세부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하나원)	. 하나원 12주, 400시간 교육
	지역적응교육 (지역적응센터)	. 전국 지역적응센터 8일, 50시간. 초기집중교육 및 지역적응지원
정착금	기본금	. 1인세대 800만원, 2인세대 1,400만원, 3인세대 1,900만원, 4인세대 2,400만원, 5인세대 2,900만원, 7인세대 이상 3,900만원
	지방거주 장려금	. 지방 2년 거주시 광역시(인천 제외)는 주거지원금의 10%, 기타지역은 주거지원금의 20%
	정착금 가산금 ⁴³⁾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 장애가산금 : 1,540만원(중증), 360만원(경증) . 장기치료가산금(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연속 입원시) : 개월 수 × 80만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보호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아동) : 세대당 400만원 . 고령가산금(만 60세 이상) : 세대당 800만원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가산금 : 만 16세 미만

및 이웃과의 생활예절, 지역 기관 및 문화 탐방)으로 진행함. 사후지원으로 9개 영역(진학, 취업, 사회보장제도 교육, 심리지원, 법률, 지역통합사업, 인권교육, 가족통합, 기타) 내의 1개 프로그램 이상을 필수로 진행해야 함.

40)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초기 정착 지원을 하며, 실비차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음 (1회당 25,000원, 월 최대 2회 50,000원까지 집행 가능).

4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포털(하나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hanaportal/>.

42) NK조선, "든든한 북한이탈주민의 도우미, 정착도우미를 아십니까?", 2014.04.14일자.

구분	항목	내용
주거	주택알선	· 아동 1인당 450만원(2명 이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1,600만원, 2인~4인세대 2,000만원, 5인 이상 세대 2,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	·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 자격취득 시, 200만원 -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는 해당없음.
	취업장려금*	· 3년간 근속시 최대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6개월, 1년, 2년, 3년 분할지급)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 급여의 1/2을 50만원 한도에서 기본 3년, 최대 4년간 지원 -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에게는 해당없음.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 적용대상 :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된 자 ⁴⁴⁾ - 적립목적 : 주택구입비, 임대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 등 - 지원기간 : 2년(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 가능, 최대 4년) - 약정 금액 :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 월 최대 50만원
	기타	· 취업센터 운영, 사회적 기업 설립, 영농정착, 창업지원, 취업지원 바우처
사회보장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혜택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 대학진학 희망 시 정원 외 특례입학
	학비지원 ⁴⁵⁾	·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지원

* 거주지보호기간 중 지급, ** 최초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특례 적용

자료: 통일부(2021).「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p.16-17.

43) 1세대당 1개 사유만 인정됨.

44) 최초 거주지 전입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45) 중고교의 경우는 만 24세 이하, 대학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함.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양상

1) 남한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징

- 중국 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다수임(중국에서 이들은 법적으로 거주 자격이 없으므로 신분보장의 문제를 갖게 됨). 가족단위 입국자가 증가하고 여성의 비율이 증가함(중국 등 체류국가의 단속강화, 북한 내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유입 증가, 북한 내 이동 용이성 증가, 기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잔여가족 입국 지원이 작용함).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의 탈북이 증가함. 남한 이주 동기가 변화함(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주함). 중국인·조선족·한국인과 결혼한 사람의 남한 입국이 증가함(탈북여성이 먼저 입국한 후, 국제결혼 등의 형식으로 자녀와 남편을 입국시킴).⁴⁶⁾

2) 정착 실태에 관한 문헌검토

-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대상자 29,880명 중 표본 3,000명) 결과, 탈북민 76.4%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1.9%가 불만족한다고 답변함.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30.8%)',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어서(24.8%)',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22.7%)' 순임. 남한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29.8%)',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19.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사회의 차별/편견 때문에(16.5%)' 순임.⁴⁷⁾
- 정착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 돈버는 것(30.9%), 취업(24.2%), 외로움(18.3%), 남한사람과의 관계(14.3%), 언어(5.5%), 생활습관(3.6%), 기타(앞날에 대한 불안감 등, 3.2%) 순으로 제시됨.⁴⁸⁾ 북한주민들은 오랜 기간 우리사회와 상이한 정치사회체제 하에서 생활함에 따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도 남한주민도 아닌 '주변인'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정착 초기에는 남북한 간의 문화적 차이, 생활정보 획득의 어려움, 남한사람들과의 접촉기회 제한, 직장생활에서의 부적응, 열등의식 등으로 인해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로 인해 외로움 등 심리적 불안정을 겪음.⁴⁹⁾
- 북한이탈주민은 대체로 5단계의 심리적 불안정을 거치면서 정착하게 됨. 5단계는, 1)이질문화 충격 단계(공포와 불안감이 심한 시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46) 이우영(2003), op. cit.

47) 남북하나재단(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사회정착의 지표로 취업률, 한달 평균소득, 소유재산 등이 있으나, 실업률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7.5%)이 일반국민(4.0%)의 2배정도임.

48) 통일부(1998),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보고서」, 서울: 통일부.

49) 이우영(2003), op. cit.

남한에 잘 온 것인지에 대한 불확신), 2)기초취업준비 단계(남한사회에 대한 불만과 동조가 혼재), 3)생활정착 단계(어느정도 적응이 이루어진 상태), 4)재사회화 단계(동화의 시기), 5)문화·사회적 통합단계(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 시기)임. 5~6년 정도 지나야 5단계가 가능함.⁵⁰⁾

- 일반국민들은 아직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끼는 비율이 낮은 상황임, 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표출함. 2020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결과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비율은 59.4%임⁵¹⁾.

3) 지역사회 내 교류에 관한 문헌검토

(1) 이웃주민과의 교류

- 지역사회(이웃)과의 교류 : 정길호(2010)는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들(25명)의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자의 대다수가 이웃주민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으며 인사를 나누거나 (추가적인 지속적 교류없이) 물품을 나누는 정도의 소극적 교류를 하는 것으로 봄. 노인과 중년여성들은 이웃과의 교류가 제법 있으나, 학생이나 중년이 하의 직장인들은 학교·학원이나 직장(사업장)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주를 이룸.
- 공식·비공식 지원기관 실무자들과의 관계 : 공식적 지원기관 실무자인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신변보호담당관과의 접촉을 보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업무차원의 접촉이 가끔 발생하고 신변보호담당관은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줄어들거나 없어짐.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의 비공식적 지원기관 중 접촉 및 교류의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은 종교기관임.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웃주민과 교류하는 경우도 있음.⁵²⁾

(2)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과의 교류

- 북한이탈주민과 교류하거나 접촉하는 조사대상자는 47% 정도이고, 개별적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는 24% 수준임. 나머지는, 북한이탈주민 동지회나 자유북한인 연합회 등의 조직에 속한 회원으로 정기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형식적인 수준의 교류나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북한이탈주민과 가끔 전화하는 정도의 얇은 인간관계를 유지함.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지역이나 직장을 근거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하나 일에서의 인연이나 중국 등지에서 가졌던 인연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짐. 이러한

50) 이장호(1996). "남한이주자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체계적 접근", 크리스찬아카데미 남북관계 대화모임: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대책과 과제, 1996.; 이우영(2003), op. cit. 재인용.

51) 통일부(2021), op. cit. p.11.

52) 정길호(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향",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12-30, p.137-151.

관계는 정착 초기 1~2년 지속되다가 거주 기간이 늘어나면서 약화되는 것으로 보임. 북한이탈주민 밀집거주지역의 경우에도, 단지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공식적인 모임은 없으며 몇몇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알고 지냄⁵³⁾.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역공동체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한 문제는 이들이 일상생활과 지역단위에서 경험하는 문제이므로 지역단위의 정착프로그램의 구축과 실현이 필요함.⁵⁴⁾ Daley(2009)는 난민의 사회통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표에 초점을 맞추나, 커뮤니티 수준에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개인과 집단의 실제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문제는 개인적 역량 강화(empowerment)_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_에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역할 강화로 확장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제 어느 지역에 정착하여 살고 있고, 왜 그곳에 정착하였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며, 남한 사회와의 통합력을 높이고 있는지'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⁵⁵⁾.
- 북한이탈주민은 정부 정책에 따라 거주지역을 공급받고 있어 능동적 선택의 기회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는 거주지역(place)은 삶과 생활을 시작하고 영위해 나가는 곳이자 남한사회 적응과 체험을 위한 '생활공간(life space)'이며, 남한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참여와 통합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기반 형성(주택, 일자리), 적응 및 통합의 실현(사회적 자본) 문제는 모두 그들의 거주지역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음. 그러나, 개인을 넘어서 지역과 공간, 지역구성원으로서 정착과정과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함⁵⁶⁾. 거주지역을 중심에 놓고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정착과 적응과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53) 이우영(2003), op. cit. p.49.

54) 이우영(2003), op. cit.

55) 장인숙, 박희진, 윤설아(2017). 「북한이탈주민 주요 거주지역 심층연구」, 서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p.4.

56) 장인숙, 박희진, 윤설아(2017). op. cit. p.5.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인식

-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기관의 활동가 2명(활동가A, 활동가B)와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활동가C)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양상, 이들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방향성을 살펴봄.

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지역공동체

(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기준

- 활동가A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자립’으로 보았으며, 활동가B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기준을 우리와 같은 일상적인 고민과 화두를 이야기할 때로 봄. 예를 들어 북에서 연락이 왔다던가 중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 등을 한다면 아직 정착의 과제가 남은 것이고, 육아에 대한 고민, 회사에 대한 고민과 같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남한 내 정착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 밀집도와 적응 간 관계

- 북한이탈주민의 밀집도와 적응 간 관계에 대하여 활동가A는 밀집도가 떨어지는 곳에 살수록 자립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함.

(3)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의 역할

- 활동가C는 도래하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우리나라 주거문화 특성을 반영한 마을 단위 공동체의 중요성을 주장함.
- 마을공동체는 마을 내 주기적 우유배달, 독거노인 반찬봉사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공동체 안정망으로 기능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안위를 살필 수 있도록 함. 이와같은 공동체 안정망은 구성원에게 국가의 복지 사각지대 내에서 또 하나의 사회적 안정망으로 기능하며 도래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하게 기능할 것임.

2) 북한이탈주민의 이웃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

- 활동가A는 북한이탈주민과 일반주민 모두 지역공동체를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함. 이는 임대단지의 특성이 반영된 경향이 있는데, 임대단지 특성상 한 번 거주하면 오래 거주하기 때문에 한 번 형성된 인식이 바뀌는 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함. 이와 관련하여 활동가A는 지금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단지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활동이나 인식도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함.

- 활동가B는 북한이탈주민은 필요도에 따라 이웃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즉,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익을 따짐. 이는 계산된 이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생활과 밀착된 이익으로, 당장의 삶을 영위하기 바쁘다는 것에서 비롯됨. 한편, 북한이탈주민은 정착하면서 받은 사회의 도움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음. 이 때문에 봉사활동에는 매우 적극적인 편이며, 이탈주민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태도 및 방식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
- 활동가B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은 주거 환경 안에서의 관계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필요보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를 더 필요로 함.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당장 공동체 차원에서의 어떠한 것을 원하기보다는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음.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활동 참여

1)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내 복지 프로그램 참여도

-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대다수가 거주지역 내 복지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이는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남한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부진함으로 인한 기피 및 북한이탈주민 간의 모임을 추구하는 선호에서 비롯됨.

2) 연령 또는 거주기간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도

- 연령과 거주기간 모두 프로그램 참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 일반적으로 남한에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의 참여도가 더 높은 편이며, 기정착 주민의 경우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생업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을 일탈하기도 함.
- 연령의 경우 고령일수록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비율이 높아 고령/여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함.

3)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활동 참여

- 탈북민들 간의 단합력은 매우 뛰어나서 비공식적인 공동체 활동이 많은 편이며, 그들끼리의 네트워크망 또한 강하게 구축되어 있음. 그러나 이가 지역적으로 일

어나기 보다는 공동체 차원에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적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음.

-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관련 시설 내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코로나 시점과 맞물려 참여율이 저조한 편임. 또한, 지역 내 복지관과 같은 기관은 보다 교육적이고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는데, 실제 탈북민은 가무 형식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함.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은 지역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북한관련 단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크다고 함.

4) 필요시설 및 프로그램

(1) 정착과정 중/정착 후 필요 프로그램

- 초기 정착자와 5년 이상 거주한 기정착자가 희망하는 복지 프로그램에는 차이가 존재함.
- 정착과정 중에는 초기 집중 교육이 필수적이며, 진로 설계 프로그램도 중요함.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진로를 설정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행기관에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이미 수강한 경우에도 지역에 나오면 진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로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함.
- 요즘에는 초기 정착자 외에 기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제 상황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음. 기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중 남한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 남북 통합 프로그램 및 심리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지원 중인 추세임.

(2)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 및 필요 프로그램

- 북한이탈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신청, 등록과 같은 작은 절차에서 쉽게 어려움을 느낌. 특히 적응 중에 있는 이탈주민은 첫 도움을 받는 기관에서 좌절을 겪으면 쉬이 절망감을 느끼기도 해서, 초반에 필요한 도움을 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의 복지체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활의 밀착보다는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의 복지체계임. 그러나, 당장의 생활과 생존이 중요한 북한이탈주민에게 모임 혹은 문화와 같은 생활 측면의 복지가 와 닿지 않는 편임. 따라서 생활에 조금 더 직접적이고 개인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함.

(3) 필요 시설 또는 프로그램 및 활동

-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기관 외에도, 지역 내에서 이탈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시설들이 많아져야 함.
-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복지관이나 관련 기관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 때 지역 공동체라고 한다면

단순히 북한 이탈주민만의 공동체를 조직해주는 게 아니라, 이탈주민들이 지역 내에 있는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필요시설로 꼽은 것은 사생활이 보호되는 상담실, 정보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실이 있으며, 그밖에 행정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하여 업무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함.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향성

1) 일반주민과의 융화 vs 북한이탈주민간의 결속

- 활동가A는 일반주민과의 융화와 북한이탈주민 간의 결속 중 일반주민과의 융화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함. 북한이탈주민간의 결속을 통해 이탈주민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좋기도 하지만, 이탈주민들끼리의 결속이 너무 강화되기만 하면 자칫하다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간의 결속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일반주민과 적절히 융화되는 것이 중요함.

2)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의 역할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 필요성

- 활동가B는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의 역할과 지역자원과의 연계 필요성을 주장함.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의 입지를 살펴보면 밀집 아파트와 복지관, 주민센터, 구청이 모두 시설 근처에 위치하고 있음. 북한이탈주민 관련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 내 자원과 모두 동일한 생활권에 입지하고 있음을 볼 때, 관련기관과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 때 관련기관이 중앙에서 허브 역할을 함으로써 각 지역 내의 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과 연계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함.

3)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방식

-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 혹은 특정 프로그램과 같은 형식보다는 생활 내에서 확장해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은 봉사나 기여 부분에 있어 상당히 열려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함.

4) 공동체를 확장하지 않고 단지 내 활동으로 끌어들이는 이유

- 활동가C는 공동체의 범위를 마을, 단지로 두고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함. 정부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인식과 지역활동 참여

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나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특히 마을 차원의 영역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함.

- 더불어 마을 공동체의 활동을 단지 내 활동으로 국한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결국에는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당장 지역 내 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의 프로그램도 잘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차원의 활동을 많이 주관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부담을 줄이고, 손쉬운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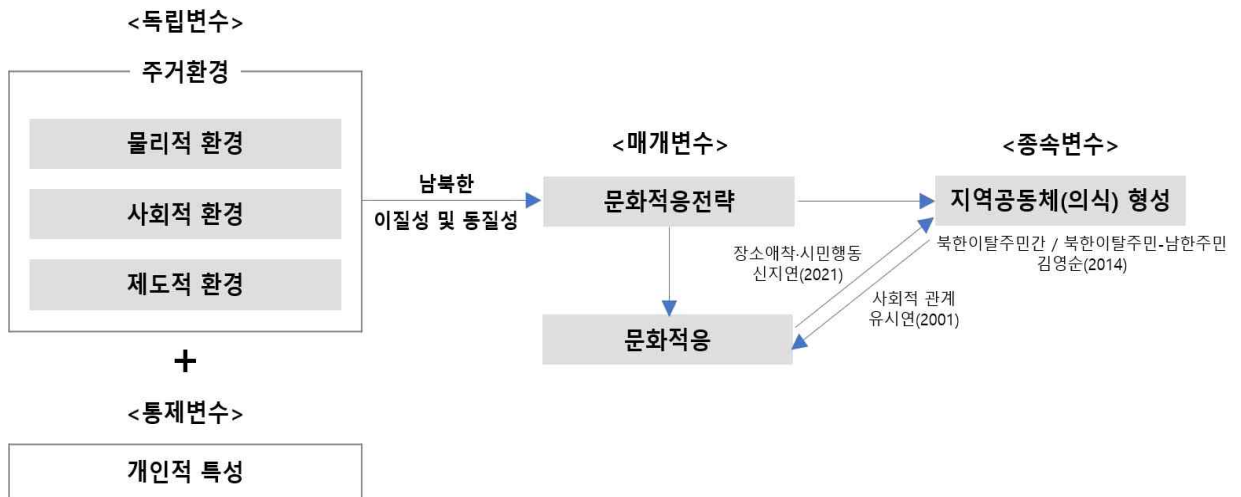


1.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분석모형

1) 연구 분석틀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지역공동체의 형성요인을 알기 위해, 주거환경(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를 분석함.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으로서 남한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므로, 문화적응 전략의 선택과 적응의 정도를 매개로 주거환경이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지역공동체 의식을 종속변수로 하고, 물리적 환경, 이웃간 상호작용(교제, 활동참여 등)을 설명변수로, 개인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며, 문화적응 전략과 적응정도를 매개변수로 하는 모형을 구축함.
- 예상 결론은, 1) 남한 내 거주지의 물리적 주거환경(계획요소, 심리적 인지 등)과 사회적 주거환경(이웃과의 관계, 공동체 활동정도,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여부 등)이 문화적응과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것임. 2) 북한과 남한에서 경험한 주거환경의 차이(출신지역, 주택유형, 이웃과의 관계, 주거기반의 사회적 관계 형성 가능성 등)가 문화적응과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줄 것임. 3) 개인이 선택한 문화적응 전략에 따라 지역공동체의 특징(북한이탈주민간 공동체 형성 혹은 남한 주민과의 공동체 형성 등)이 달라질 것임.

<그림 5-1> 연구 분석틀



2) 측정 항목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의 측정 항목을 도출함.

<표 5-1> 설문조사 측정항목의 구성

분 류	측 정 항 목	비 고	
독립변수	물리적 환경	주택유형(북한/남한)	아파트/연립/단독
		거주기간	
		주택점유형태(북한/남한)	
		주호규모(북한/남한)	
		거주층수	
		생활편의시설의 유무/이용빈도/접근성	
	사회적 환경 -상호작용	친한 이웃 수(북한/남한)	
		이웃과의 교제정도(북한/남한)	
		활동 참여(참여태도-적극/소극)	
		활동의 구성원(북한이탈주민간/남북한주민)	
		동질성 인식	
		근린인식 범위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여부	
		만족도(거주환경/생활편의시설)	5점척도
	제도적 환경	환경심리적 인지(쾌적성, 안전성, 자연친화성, 위압감, 개방감, 과밀감, 영역성, 입구성, 경계성, 정체성, 중심성, 상징성, 접근성, 연계성, 길찾기 쉬운 구조)	5점척도
공식적 주민활동 빈도/출석률			
통제변수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탈북시기/입국시기	
		거주지역(북한/남한)	
		최종학력(북한/남한)	
		남한 내 교육기간(공교육기간)	
		직업(북한/남한)	
		가족 소득수준(북한/남한)	
		가족구성(가족수)(북한/남한)	
종교			
매개변수	문화적응전략	남한문화 지향성(12문항)	5점척도
		북한문화 지향성(11문항)	5점척도
	사회적응 (문화적응)	남한사회 적응수준(20문항)	5점척도
		지역사회 적응수준(42문항)	5점척도
종속변수	지역공동체의식	구성원의식(5문항)	5점척도
		상호영향의식(5문항)	5점척도
		욕구충족과 통합(6문항)	5점척도
		정서적 친밀감(6문항)	5점척도

3) 분석 방법

(1)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분석

-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주거환경이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에 개인이 취하는 문화적응전략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매개효과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음. 매개변수인 문화적응전략이 범주형 변수이므로 Baron & Kenny 방법을 응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함.
- 종속변수인 지역공동체의식은 Chavis et al.(1986)와 이라영 & 신남수(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출한 22개의 측정항목을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했음. 측정값을 1개의 요인분석하여 산출한 요인점수로 변수값을 산정했음(KMO=0.813). 독립변수인 주거환경은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남북한 주거환경의 차이로 구분함. 물리적 환경은 시설의 이용빈도, 물리적 환경에 대한 심리적 인식(쾌적성, 경계성) 등을 포함하였고, 사회적 환경은 이웃과의 교제 강도, 참여하는 주민활동 수 등 이웃과의 상호작용과 주민활동을 포함함. 남북한의 주거환경 차이는 출신지역의 차이(농촌, 도시), 주택유형의 차이(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포함함.
- 매개변수인 문화적응전략은 북한 문화지향성과 남한 문화지향성을 각각 10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남북 문화지향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두 문화지향성이 모두 평균 이상일때는 통합, 남한 문화지향성만 평균 이상일때는 동화, 북한 문화지향성만 평균 이상일때는 분리, 모두 평균 이하일때, 주변화로 분류하였음.

<표 5-2> 변인 구성

		변수명	측정
종속변수		지역공동체의식	요인분석에 의한 요인점수(22 항목: 5점 척도)
매개변수		문화적응전략	남북한 문화지향성의 평균을 기준으로 분류(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물리적 환경	이용빈도	회의 및 모임공간 이용빈도	주당 이용횟수
		종교시설 이용빈도	주당 이용횟수
		야외시설 이용빈도	주당 이용횟수 (외부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야외 운동시설)
	심리적 인식	길찾기쉬운 구조	5점 척도
		쾌적성	5점 척도
		경계성	5점 척도
		상징성	5점 척도
사회적 환경		교제유형1(인사)	인사 나누는 가구수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가구수의 평균
		교제유형2(대화)	함께 활동하는 가구수
		교제유형3(활동)	서로 돕는 가구수와가족처럼 상의하는

		가구수의 평균
	이웃과의 교제 횟수	이웃과의 교제 횟수
	주민활동수	참여하는 주민활동 수
남북한 주거환경의 차이	북한 거주지역	농촌=0, 도시=1
	북한 주택유형	아파트=0, 하모니카주택=1, 독집=2
	교제유형1_NK	북한 거주시, 인사 나누는 가구수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가구수의 평균
	교제 횟수_NK	북한 거주시, 이웃과의 교제 횟수
	가족 구성원수_NK	북한 거주시, 가족 구성원수
통제변수	연령	연속형 변수
	거주기간	주택 거주기간
	직업유무	무=0, 유=1

(2) 면담

- **설문 후 간단한 면담:** 설문조사에 이어서 다음의 질문을 포함하여 간단한 반구조 인터뷰를 진행함. 1) ‘남한에서 소속감과 친밀감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공동체가 있나요? 북한에서는 있었나요? 각 공동체의 특징을 설명해주세요.’ 2) ‘남한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과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3) ‘이웃들과 교류나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이는 양적 분석의 해석을 용이하게 함.
- **심층면담:** 가족 구성 특성에 따른 형성하는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의 특징, 연령이나 거주기간에 따른 지역 자원에 대한 접근성, 사적 교류와 조직화된 주민활동이 지역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등 설문조사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성별, 가구 특성, 거주기간, 직업유무, 북한의 거주지역 특성(도시,농촌) 등에 따른 지역공동체 형성의 차이에 관해 조사함.

2.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1) 물리적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 물리적 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을 회귀분석한 결과, 종교시설과 야외시설(야외운동 시설, 어린이놀이터, 야외휴게시설_공원, 산책로 등)의 이용빈도가 지역공동체의식에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물리적 환경에 대한 환경심리적 요인 중에서, 근린환경을 길찾기 쉬운 구조로 인식하고, 쾌적하게 느낄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준화 계수를 비교하면, 쾌적성과 길찾기쉬운구조 등 환경심리적 요인이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큼.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표 5-3> 다중회귀분석 결과: 물리적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변수		Coef.	Robust Std.Err.	T	P>t	Beta	VIF
회의 및 모임공간 이용빈도		-0.154	0.453	-0.34	0.734	-0.024	1.37
종교시설 이용빈도		0.243	0.113	2.16	0.034**	0.176	1.43
야외시설 이용빈도		0.047	0.024	1.97	0.052*	0.159	1.04
길찾기쉬운 구조		0.264	0.090	2.92	0.004***	0.257	1.28
쾌적성		0.246	0.112	2.18	0.032**	0.205	1.35
연령		0.008	0.006	1.37	0.173	0.122	1.38
성별 (여성=0)	(남성=1)	-0.172	0.238	-0.72	0.470	-0.069	1.21
거주기간		0.003	0.001	2.25	0.027**	0.189	1.25
직업유무 (무=0)	(유=1)	0.555	0.178	3.12	0.002***	0.273	1.22
Intercept		-3.375	0.507	-6.65	0.000	.	.
No.ofsamples, R2		N=100, R ² =0.4044					

Notes: ***p < 0.01, **p < 0.05, *p < 0.10

- 환경심리적 요인이 유의한 것은, 공동주택단지 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공동체의식의 관계를 분석한 이라영 & 신남수(2009) 연구의 결과와 동일함. 이라영 & 신남수(2009) 연구에서도 쾌적성, 경계성, 길찾기쉬운구조 등 환경심리적 요인이 표준화계수가 큰 주요한 영향요인임.
- 종교시설은 주거환경과 공동체의식의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변수는 아니나,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이들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Kim, J. & Kaplan, R.(2004)이 Kentlands과 Orchard Village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적 요소(공공녹지, 보도, 호수, 습지 등)가 지역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이며, 본 연구에서도 자연적 요소를 포함한 야외시설이 유의한 변수임.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원과 산책로, 야외에 설치된 베드민턴장 등이 이웃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운동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음. 이들 시설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이 이용방법이 쉽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웃과 만나고, 같이 활동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음.

<표 5-4> 생활편의시설 이용빈도(월)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복지시설	0.92	2.05	0	10
상업시설	8.22	5.97	0	30
운동시설(실내)	1.07	3.30	0	21
운동시설(야외)	1.78	4.54	0	30
문화시설	0.64	1.88	0	13
의료시설	2.97	4.25	0	30
야외공간(공원,산책로)	8.31	8.48	0	30

2) 사회적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 사회적 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을 회귀분석한 결과, 도움을 주고받고, 가족처럼 상의하는 교제강도가 높은 가구가 많을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근린에서 참여하는 활동이 많을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5-4>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변수	Coef.	Robust Std.Err.	T	P>t	Beta	VIF	
교제유형1(인사,대화)	0.007	0.010	0.74	0.460	0.086	1.82	
교제유형2(활동)	-0.048	0.021	-2.30	0.024**	-0.224	2.00	
교제유형3(도움,상의)	0.094	0.051	1.83	0.070*	0.280	2.35	
이웃과의 교제 횟수	0.002	0.058	0.04	0.972	0.003	1.32	
주민활동수	0.166	0.075	2.20	0.031**	0.172	1.05	
연령	0.015	0.007	2.20	0.030**	0.218	1.43	
성별 (여성=0)	(남성=1)	-0.189	0.247	-0.77	0.445	-0.076	1.19
거주기간		0.003	0.001	2.12	0.037**	0.217	1.28
직업유무 (무=0)	(유=1)	0.440	0.192	2.29	0.024**	0.216	1.17
Intercept		-1.704	0.332	-5.13	0.000	.	.
No.ofsamples, R2	N=100, R ² =0.2975						

Notes: ***p < 0.01, **p < 0.05, *p < 0.10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 McMillan & Chavis(1986)의 접촉가설에 의하면 더 많은 교류의 기회, 교류(상호작용)의 질, 공유된 경험은 정서적 연결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함. 접촉가설에 의해, 인사나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가족의 수(교제유형1)보다 서로 돕고 문제를 상의하는 가족의 수(교제유형3)가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근린 내 참여하는 주민활동의 개수가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음. 함께 활동하는 가구수가 지역공동체의식과 (-)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이웃과의 상호작용이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웃과의 교제는 물리적 환경에 비해 만족도가 낮으며, 이는 북한에서 거주시, 이웃과의 교제 만족도가 주거환경의 만족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과는 대비됨.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방안이 필요함.

<표 5-5> 남한 내 주거환경 만족도(2022'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항목	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거환경(전체)	76	4.13	0.91	2	5
주택내부(조망, 일조, 통풍 등)	76	4.01	1.11	1	5
교통	76	4.36	0.78	2	5
교육환경	74	4.21	0.88	2	5
생활편의시설	76	4.32	0.80	2	5
복지시설	52	4.34	0.98	1	5
상업시설	76	4.64	0.67	2	5
운동시설(실내)	52	4.01	1.12	1	5
운동시설(야외)	59	4.11	1.03	1	5
문화시설	49	4.12	1.20	1	5
의료시설	73	4.52	0.81	2	5
야외공간(공원,산책로)	71	4.60	0.76	2	5
이웃과의 교류	76	3.82	0.82	1	5

*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음. 이용하지 않는 시설의 만족도 표기가 누락됨

<표 5-6> 북한 내 주거환경 만족도(2021'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

항목	개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주거환경(전체)	100	2.91	1.26	1	5
주택내부(조망, 일조, 통풍 등)	100	3.05	1.43	1	5
교통	100	1.89	1.16	2	5
교육환경	100	1.50	0.87	1	4

생활편의시설	100	2.25	1.18	1	5
공동가사시설	100	1.29	1.43	1	5
공동생산시설	100	1.10	1.35	1	4
사상교양시설	100	2.41	1.69	1	5
교육문화시설	100	2.40	1.36	1	5
상업업무시설	100	1.88	1.34	1	5
체육시설	100	1.52	1.44	1	5
야외공간(공원등)	100	1.69	1.58	1	5
이웃과의 교류	100	3.79	0.95	1	5

3) 남북한 주거환경의 차이와 지역공동체의식

- 북한에서 경험한 물리적 환경(도시지역 혹은 농촌지역, 주택유형)은 유의하지 않으며, 경험했던 교제가구수(인사, 간단한 대화)와 교제횟수가 클수록 남한에서의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5-7> 다중회귀분석 결과: 남북한 주거환경 차이와 지역공동체의식

변수		Coef.	Robust Std.Err.	T	P>t	Beta	VIF
북한 거주지역 (농촌=0)	(도시=1)	-0.218	0.192	-1.13	0.260	-0.109	1.26
북한 주택유형 (아파트=0)	(하모니카주택=1)	0.071	0.251	0.28	0.777	0.035	1.84
	(독집=1)	-0.259	0.254	-1.02	0.310	-0.115	1.96
교제유형1(인사,대화)_NK		0.000	0.000	5.20	0.000***	0.161	1.04
교제 횟수_NK		0.010	0.005	1.93	0.056*	0.157	1.11
가족 구성원수_NK		0.055	0.061	0.91	0.363	0.096	1.10
연령		0.015	0.006	2.23	0.028**	0.215	1.44
성별 (여성=0)	(남성=1)	-0.174	0.251	-0.69	0.490	-0.070	1.25
거주기간		0.002	0.001	1.65	0.102	0.162	1.31
직업유무 (무=0)	(유=1)	0.509	0.189	2.68	0.009***	0.250	1.20
Intercept		-1.659	0.532	-3.12	0.002	.	.
No.ofsamples, R2		N=100, R ² =0.2939					

Notes: ***p < 0.01, **p < 0.05, *p < 0.10

-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사람이 남한에서도 이웃과의 교류와 주민활동에 적극적인 경향을 보임에서도 알 수 있음. 남북한 주거환경의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북한에서 이웃과 맺었던 관계의 정도가 남한 내 이웃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북한에서 농촌에 살았던 경우, 지역 내 적응과 공동체 형성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터뷰를 통해 남한으로 올 때 대부분 중국을 거치므로 농촌과 도시의 출신지역 차이는 중국에 머무를 때 크게 느끼고, 남한에 와서는 농촌에서 살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문화적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함.

4) 개인적 역량(직업 등)과 지역공동체의식

- 지역공동체의식에 높은 유의도와 표준화계수를 가지는 변수는 직업의 유무임. 인터뷰를 통해서도, '지역에 적응했구나, 이곳이 내 동네구나'라고 느끼게 된 시점을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되었을 때, 남한에서 돈을 벌면서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리고 나서 지역의 시설들이 눈이 들어 오고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함.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소득, 직업, 교육수준 등의 개인적 역량 강화(empowerment)에서 사회구성원들 상호간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사회통합으로 강조점이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지역공동체에 소속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직장과 수입이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3. 문화적응과 지역공동체의 관계

1) 문화적응전략과 지역공동체의식

- 북한이탈주민이 취하는 문화적응전략을 더미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주변화보다 동화와 통합 전략을 취할 때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준화계수를 비교했을 때, 동화(Beta=0.262)보다 통합(Beta=0.443)일 때, 지역공동체의식이 더 높음. 즉, 북한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남한의 새로운 문화를 수용할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
- 인터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해가 되거나, 혹은 남한사람들에게 자신이나 가족이 편견적 시선을 받을 것에 대한 염려로 북한에서 왔다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을 보임. 통합의 전략을 취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투나 북한출신이라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동체의식도 높지만, 주변화의 전략을 취하는 사람은 말투가 달라서

북한사람인 것이 드러날까봐 이웃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의 시도조차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임.

<표 5-7> 다중회귀분석 결과: 문화적응전략과 지역공동체의식

변수		Coef.	Robust Std.Err.	T	P>t	Beta	VIF
문화적응전략 (주변화=0)	(분리=1)	0.143	0.224	0.64	0.526	0.057	1.71
	(동화=1)	0.550	0.219	2.51	0.014**	0.262	1.77
	(통합=1)	1.032	0.254	4.05	0.000***	0.443	1.71
연령		0.017	0.006	2.62	0.010**	0.252	1.43
성별 (여성=0)	(남성=1)	-0.427	0.265	-1.61	0.111	-0.171	1.24
거주기간		0.003	0.001	2.09	0.039**	0.189	1.20
직업유무 (무=0)	(유=1)	0.476	0.170	2.80	0.006***	0.234	1.18
Intercept		-1.901	0.311	-6.11	0.000	.	.
No.ofsamples, R2		N=100, R ² =0.3441					

Notes: ***p < 0.01, **p < 0.05, *p < 0.10

2) 매개효과 분석: 문화적응전략

-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Baron & Kenny 방법을 응용한 3단계 모델에서, 문화적응 전략의 계수 중 일부가 유의하고, 2단계에서 유의한 독립변수인 종교시설의 이용 빈도와 쾌적성은 유의하지 않게 되었으며, 야외시설의 이용빈도, 길찾기쉬운 구조, 거주기간, 직업유무의 계수값은 작아졌음. 따라서, 이를 통해 부분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주거환경이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에 문화적응전략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이 매개함을 알려줌.

<표 5-8> 문화적응전략의 매개효과분석

Model1			Model2			Model3		
주거환경 → 문화적응전략			주거환경 → 지역공동체의식			주거환경, 문화적응전략 → 지역공동체의식		
Coef.	exp(β)	S.E	Coef.	Beta	S.E	Coef.	Beta	S.E

제5장.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문화적응 전략 (주변화=0)	(분리=1)	·	·	·	·	·	·	0.108	0.043	0.256
	(동화=1)	·	·	·	·	·	·	0.353	0.168	0.226
	(통합=1)	·	·	·	·	·	·	0.750***	0.322	0.248
회의 및 모임공간 이용빈도		-0.197	0.820	1.210	-0.154	-0.024	0.592	-0.119	-0.019	0.577
종교시설 이용빈도		0.364	1.439	0.317	0.243**	0.176	0.134	0.201	0.145	0.130
야외시설 이용빈도		0.055	1.056	0.057	0.047**	0.159	0.024	0.039*	0.133	0.023
길찾기쉬운 구조		0.206	1.228	0.223	0.264***	0.257	0.094	0.249**	0.243	0.095
쾌적성		0.483	1.621	0.265	0.246**	0.205	0.113	0.160	0.133	0.115
연령		-0.013	0.986	0.015	0.008	0.122	0.006	0.010	0.152	0.006
성별 (여성=0)	(남성=1)	1.080	2.945	0.536	-0.172	-0.069	0.222	-0.328	-0.132	0.221
거주기간		0.002	1.003	0.003	0.003**	0.189	0.001	0.002**	0.169	0.001
직업유무 (무=0)	(유=1)	0.117	1.125	0.428	0.555***	0.273	0.182	0.542***	0.267	0.176
Intercept		·	·	·	-3.375	·	0.530	-3.268	·	0.514
Model's goodness of fit		LR (9)=16.00*			F(9,90)=6.79***			F(12,87)=6.41***		
No.ofsamples, R2		N=100			N=100, R ² =0.3449			N=100, R ² =0.3962		

Notes: ***p < 0.01, **p < 0.05, *p < 0.10

-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시설의 이용빈도의 경우, 개인의 문화적응전략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목적의 차이가 발생할 것임. 종교시설의 경우 예를 들면, 이용 목적이 차이는 교류 혹은 마음의 평화가 될 수 있음. 이것이 공동체의식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임.
- 개인의 문화적응전략의 차이는 근린 내 필요한 공간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통합전략을 취하며 봉사활동, 지역자치위원 활동 등을 하는 사람은 이웃과 동네에 필요한 공간이 북한의 음식을 만들어 이웃 혹은 지역내 노인분들과 나눠먹을 수 있는 공동부역이나 모임공간이었으며, 이러한 대화나 접촉의 기회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함.
- 주변화전략을 취하는 사람은 이웃과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용무가 생겼을 때 아이들을 잠깐씩 돌봐줄 수 있는 이웃이나 공동 돌봄 공간이라고 말함. 일상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통해서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의 계획요소를 도출함에 있어서 개인의 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제6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정착과 사회통합의 문제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지역 차원의 문제이며, 이들의 정착을 위해서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고, 소속감과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계획적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을 분석한 결과, 공원, 산책로, 야외 운동시설 등의 야외시설의 이용빈도가 높고, 지역공동체의식에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야외시설의 경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하천변 등 도심 속 자연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어서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함께 산책과 운동을 하거나 가서 이웃들을 만나는 등 이웃과의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또한, 참여하는 주민활동이 많을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여 관찰한 결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도움을 준다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참여자 간에 서로 대화하며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음. 지역의 치안을 돕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독거노인을 위한 반찬봉사단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심층면담한 결과,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활동으로 인해 지역의 기관들과, 주민자치위원 등과 같이 지역에서 기반을 다진 주민들과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지역 내 일자리, 진로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얻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과 유익한 지역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함을 알 수 있었음.
-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의 정치체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이주민의 문화적응과정을 겪음.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이들은 출신국인 북한의 문화지향성과 이주국인 남한의 문화지향성에 따라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4가지 문화적응전략(문화적응태도)를 가지게 됨.
- 문화적응전략과 지역공동체의식을 분석한 결과, 주변화에 비해 동화와 통합의 전략을 가지는 경우,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통합의 전략은 출신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주국의 문화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문화를 쉽게 소개하고 이웃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함. 이웃들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남북한 음식을 같이 만들고 먹을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 음식을 먹으며 갖게 되는 대화나 접촉의 기회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함.
- 문화적응전략은 매개변수로 문화적응전략에 따라 주거환경이 지역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개인이 취하는 문화적응전략에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이

루기 위해서 다른 접근이 필요함. 통합의 전략을 취하는 경우와 주변화 전략을 취하는 경우에 따라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주거환경(시설, 프로그램, 활동 등)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심층면담,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참여관찰 등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통해 조사를 실시함. 다만, 설문조사의 표본 크기가 100명으로 정교한 통계모형의 도입을 통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음.
-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에 대한 조사와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분석의 엄밀성과 실용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조사된 자료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추가수집하여 보완하는 후속의 연구가 필요함.
- 2021년 북한 내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결과와 2022년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후속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통일, 평화, 공존의 시기의 주택 및 주거환경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통일 후 남북한 이질성 극복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김민아(2018).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봉준(2007).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향논총, 40, pp.147~166.
- 김신의(2019. 12. 06). 2019 북한이탈주민 경제 및 사회통합 실태 조사, 크리스천투데이.
- 김종재(1993). 도시민의 정주 커뮤니티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수(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pp.17-31.
- 남북하나재단(2022).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서유경(2013).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21(2), pp.301-327.
- 설진배, 송은희, 이은미(201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방안: 경제적 적응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북아논총, 70, pp.157-174.
- 성정현(2016). 탈북여성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종족화된 낙인'과 탈북여성들의 공동체 형성 및 활동, 한국가족복지학, 2016-09-30, 53, pp.79
- 윤인진(2019).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문화와 정치, 6(1), pp.61-92.
- 윤인진 & 한기덕(2022).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 현대사회와 다문화, 12(3), pp.1-39.
- 윤인진 외(2004).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연구: 탈북자 가족의 남한사회 적응을 통해 본 통일 이후 남북한 가족과 성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 윤호(2010).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0(41), pp.184-200.
- 이금순(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5(1), pp.191-234.
- 이라영 & 신남수(2009).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3), pp.223-234.
- 이수정(2014).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17(2), pp.85-126.
- 이우영(20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서울: 통일연구원.
- 이유진(2016). 저소득층과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밀집 주거지 내 근린환경 인식 차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민 & 황선영(200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 복지정책, 0(33), pp.61-84.
- 장세훈(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청진·신의주·해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2), pp.100-134.
- 장인숙, 박희진, 윤설아(2017). 북한이탈주민 주요 거주지역 심층연구, 서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전우택(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pp.109-167.
- 정길호(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방향,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2010-12-30, pp.137-151.
- 정진경 & 양계민(2004). 문화적응 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23(1), 101-136.
- 조민경 & 김렬(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pp.263-289.
- 채정민(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현숙(2001).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거주자 특성과 커뮤니티 특성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9(1), pp.143-172.
- 최열, 공윤경(2007). 공동주택 단지설계요소 및 거주자특성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3(5), pp.83-90.
- 최정호, 박선미(201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분포의 특성과 영향 요인-경기도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6(3), pp.71-85.
- 통일부(1998). 북한이탈주민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보고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2021). 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한지은(201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문화개선 방안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1), pp.675-684.
- 허준영(2012).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서독의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통일정책연구, 21(1), pp.271-304.
- 홍형욱, 채혜원(2004).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의 입주자관리, 공유공간 만족도와 지역공동체의식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pp.95-105.
- 淺見泰司 編(Yasushi Asami) ; 강부성.강인호.박인석.이규인.최정민 공역(2003). 住居環境 : 평가방법과 이론, 서울: 시공문화사.

- Berry, J.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pp.5-34.
- Chavis, D. M. & Wandersman, A. (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 pp.55-79.
- Daley, C. (2009). Exploring community connections: community cohesion and refugee integration at a local level.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4(2), pp.158-171.
- Di Bartolomeo, A., Kalantaryan, S., & Salamońska, J. (2017). Conclusions. In Di Bartolomeo, A., Kalantaryan, S., Salamońska, J., & Fargues, P. (Eds.). (2017). *Migrant Integration Between Homeland and Host Society Volume 2: How countries of origin impact migrant integration outcomes: an analysis* (Vol. 8, pp.233-236). Springer.
- Hägerstrand, T. (1970). What about people in regional scienc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Papers*, 14, pp.7-21.
- Hooimeijer, P. & Knaap, G. A. van der. (1994). From flows of people to networks of behaviour. *Nederlandse Geografische Studies*, 173, pp.178-187.
- Kim, J. & Kaplan, R. (2004).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Sense of Community: New Urbanist Kentlands and Nearby Orchard Village. *Environment and behavior*, 36(3), pp.313-340.
- McMillan, D.W., & Chavis, D.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pp.6-23.
- Poplin, Dennis E. (1979). *Communities: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New York: Macmillan.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부록



[1. 설문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간 관계

NO.

--	--	--	--

<설문작성 요령>

1. 시간적 범위

- ▶ 현재 : 이사경험이 없는 경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 북한 거주 시 : 북한을 떠나기 직전 살았던 살림집(임시거처 제외)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간적 범위

- ▶ 동네 : 도보 10분(반경 400m) 이내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경우,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범위입니다.

I 주거에 대한 일반적 사항

1-1)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 ▶ 현재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 ▶ 북한 거주 시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1-2)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 ▶ 현재
 - ① 아파트
 - ② 빌라(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③ 다가구주택
 - ④ 단독주택
 - ⑤ 기타 : _____
- ▶ 북한 거주 시
 - ① 아파트
 - ② 하모니카집(연립주택)
 - ③ 독집
 - ④ 기타 : _____

1-3)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 현재
 - ① 본인 소유 집(매매)
 - ② 임대아파트(하나원 배정, 공공, 민간)
 - ③ 타인 소유 집(전·월세)
 - ④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
 - ⑤ 기타 : _____
 - ▶ 북한 거주 시
 - ① 국가에서 배정받은 집
 - ② 본인 소유 집(매매)
 - ③ 타인 소유 집(전·월세)
 - ④ 기타 : _____
- ※ 기타(예시) : 친척 또는 친구집

1-4) 현재의 집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년 _____월 - _____년 _____월

1-5) 몇 층에 사십니까? _____층

1-6) 한 층에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_____세대

1-7) 집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 현재 _____평

▶ 북한 거주 시 _____평

※ 북한 실태집의 경우, 남한 평수를 기준으로 몇 평이었는지 기재

② 물리적 환경

2-1) 동네에 있는 생활편의시설의 유무와 이용빈도는?

	유/무			이용빈도	접근성 5 (좋음) ↔ (나쁨) 1
	유	무	모름		
경로당(노인정)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도서관(작은 도서관)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회의/모임 공간(주민회의실 등)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복지관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교육시설(어린이집, 학교 등)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상업시설(마트, 식당 등)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실내 운동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야외 운동시설(베드민턴장 등)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문화시설(영화관, 문화센터 등)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종교시설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어린이놀이터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외부 휴게공간(공원, 산책로 등)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주차시설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기타 : _____				_____회/(주, 월, 년)	(5, 4, 3, 2, 1)

※ 이용 빈도 작성(예시) : 주 2회 이용했을 때, 2 회/(☉, 월, 년)

※ 기타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프로그램실 등

2-2) 거주하는 동네의 생활편의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하다	매우 불만족하다
생활편의시설 전체 평가	5	4	3	2	1
경로당(노인정)	5	4	3	2	1
도서관(작은 도서관)	5	4	3	2	1
회의/모임 공간(주민회의실 등)	5	4	3	2	1
복지관	5	4	3	2	1
교육시설(어린이집, 학교 등)	5	4	3	2	1
상업시설(마트, 식당 등)	5	4	3	2	1
실내 운동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5	4	3	2	1
야외 운동시설(베드민턴장 등)	5	4	3	2	1
문화시설(영화관, 문화센터 등)	5	4	3	2	1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	5	4	3	2	1
종교시설	5	4	3	2	1
어린이놀이터	5	4	3	2	1
외부 휴게공간(공원, 산책로 등)	5	4	3	2	1
도로 및 주차시설	5	4	3	2	1

2-3) 거주하는 동네의 주거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하다	매우 불만족하다
주거환경 전체 평가	5	4	3	2	1
개인생활 보호(프라이버시 확보)	5	4	3	2	1
집 내부의 환경(조광, 일조 동풍)	5	4	3	2	1
공공 서비스시설	5	4	3	2	1
통근 및 교통 사정	5	4	3	2	1
생활편의시설	5	4	3	2	1
교육환경	5	4	3	2	1

※ 공공 서비스시설 :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 생활편의시설 : 경로당, 도서관, 회의/모임 공간, 복지관, 교육시설, 상업시설, 실내 운동시설, 야외 운동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어린이놀이터, 외부 휴게공간, 주차시설 등

2-4) 북한에서 살았던 동네와 현재 살고 있는 동네를 간략하게 그려주세요.

북한에서 살았던 동네(집과 집 주변)	현재 살고 있는 동네(집과 집 주변)

2-5) 북한에서 살았던 동네의 주거환경과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이 차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매우 다르다	약간 다르다	보통이다	약간 비슷하다	매우 비슷하다
주거동 배열 형태	5	4	3	2	1
보차체계(보도/차도의 분리 여부)	5	4	3	2	1
내부 도로체계	5	4	3	2	1
복도 형태	5	4	3	2	1
외부 휴게/놀이공간 배치유형	5	4	3	2	1
생활편의시설	5	4	3	2	1
교통체계(대중교통 포함)	5	4	3	2	1
주거환경 전체	5	4	3	2	1

2-5-1) 가장 다르게 느끼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적어주세요: _____

※ 주거환경: 주거동 배열 형태(병렬, L, □), 보차 체계(혼용, 분리), 내부 도로체계(격자형, 가지형, 순환형), 복도 형태(편복/중복/계단/ELEV. 줄), 외부 휴게 및 놀이공간 배치유형(분산형, 집중형, 선형, 전체녹지형), 생활편의시설 등

2-6) 동네에 거주하면서 가지는 환경에 대한 느낌을 표기해 주세요.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동네와 이웃 동네의 경계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5	4	3	2	1
2	동네 내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활동의 중심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있다.	5	4	3	2	1
3	동네 생활편의시설들에 접근이 쉬워서 이용에 용이하다.	5	4	3	2	1
4	동네 생활편의시설들이 잘 연계되어 있어서 연계 이용이 용이하다.	5	4	3	2	1
5	우리 동네는 처음 온 사람도 길을 찾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5	4	3	2	1
6	우리 동네를 소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른 동네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5	4	3	2	1
7	우리 동네는 안전하다고 느껴진다.	5	4	3	2	1
8	우리 동네는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9	우리 동네는 자연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5	4	3	2	1
10	동네 내부에 들어서면 위압감(억누르는 느낌)을 느낀다.	5	4	3	2	1
11	동네 내부에서 개방감(탁 트인 느낌)을 느낀다.	5	4	3	2	1
12	동네의 면적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서 혼잡하다.	5	4	3	2	1

※ 생활편의시설 : 경로당, 도서관, 회의/모임 공간, 복지관, 교육시설, 상업시설, 실내 운동시설, 야외 운동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어린이놀이터, 외부 휴게공간, 주차시설 등

2-7) 현재 살고 계신 집에서 이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1) 위 질문에서 ①번을 기재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집 내부의 환경(일조, 환기 등)이 나빠서 ② 집의 면적이 작아서
 ③ 집이 낡아서 ④ 내 집을 마련하고자
 ⑤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해서 ⑥ 교통이 불편해서
 ⑦ 교육여건이 나빠서 ⑧ 직장이 멀어서
 ⑨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⑩ 기타 : _____

※ 기타(예시) : 재건축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투자가치가 없어서 등

③ 사회적 환경 : 동네주민과의 상호작용

3-1) 남한 내에서 평소에 사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① 있다 (_____ 명 → 이 중에, 북한이탈주민 _____ 명)
- ② 없다

※ 교류 :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만나서 활동을 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함

3-2) 남한 내에서 도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가족 제외)

- ① 있다 (_____ 명 → 이 중에, 북한이탈주민 _____ 명)
- ② 없다

3-3) 동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현재

관계의 정도	가구 수	(이 중에) → 북한이탈주민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눈다.	_____ 가구	_____ 가구
만나면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_____ 가구	_____ 가구
외출이나 활동을 함께 한다.	_____ 가구	_____ 가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	_____ 가구	_____ 가구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며 가족같이 지낸다.	_____ 가구	_____ 가구

▶ 북한 거주 시

관계의 정도	가구 수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눈다.	_____ 가구
만나면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_____ 가구
외출이나 활동을 함께 한다.	_____ 가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	_____ 가구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며 가족같이 지낸다.	_____ 가구

3-4) 동네주민과의 교제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현재 _____ 회 / (주, 월)

▶ 북한 거주 시 _____ 회 / (주, 월)

※ 직성(예시) : 주 2회 이용했을 때, 2 회/(☉, 월)

3-5) 동네주민과 친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같은 북한이탈주민이어서
 ② 가까이 살면서 자주 얼굴을 보아서
 ③ 가족구성원끼리의 사귀음 통해(아이, 아내, 남편)
 ④ 종교,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⑤ 직장과 직업이 유사해서
 ⑥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해서
 ⑦ 기타 : _____

3-5-1) 위 질문에서 ④번을 기재하신 경우, 어떤 활동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적어주세요: _____

3-5-2) 위 질문에서 ⑥번을 기재하신 경우,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적어주세요: _____

※ 생활편의시설 : 경로당, 도서관, 회의/모임 공간, 복지관, 교육시설, 상업시설, 실내 운동시설, 야외 운동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어린이놀이터, 외부 휴게공간, 주차시설 등

3-6) 동네주민과의 대화나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자주 교류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① 집 안에서
 ② 복도, 엘리베이터, 주거동(집) 현관에서
 ③ 주거동(집) 앞 마당에서
 ④ 생활편의시설(복지관, 놀이터, 공원 등)에서
 ⑤ 기타 : _____

3-6-1) 위 질문에서 ④번을 기재하신 경우,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적어주세요: _____

3-7) 동네주민들과의 교제(교류)에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불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불만족하다
5	4	3	2	1

3-8) 남한 내에서 참여하고 있는 모임이나 활동의 개수와 참여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적모임	단체활동
남한 전체	_____ 개 → (이중에) 북한이탈주민만 참여 _____ 개	_____ 개 → (이중에) 북한이탈주민만 참여 _____ 개

3-11) 동네주민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주 활동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3순위 : _____

- | | |
|------------------------|--------------------------|
| ① 친교(식사, 대화) | ② 도움주고받기(아이봐주기, 물건 빌려쓰기) |
| ③ 여가 및 취미 활동(축구, 탁구 등) | ④ 호혜적 상부상조(생일·결혼·장례 챙기기) |
| ⑤ 금전거래 | ⑥ 중요한 일 상의 |
| ⑦ 봉사활동 | ⑧ 기타 : _____ |

3-12) 외출 시 어디까지 왔을 때 집에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 | | |
|--------------|--------------|
| ① 주거단지 근처 | ② 주거단지 입구 |
| ③ 주거동(집) 앞마당 | ④ 주거동(집) 입구 |
| ⑤ 세대 현관 입구 | ⑥ 기타 : _____ |

3-13) 다음의 일상적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일상적 행위의 범위	세대 현관 앞	같은 층	1층 주거동 앞	주거동 앞마당	단지 전체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바로 나오기도 하는 곳					
어린이를 걸에서 돌보지 않고도 놀게 두는 곳					
종이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우려 하는 곳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쓰이는 곳					

※ 살고 있는 집이 빌라·다가구주택·단독주택인 경우, 간략히 그런 동네지도에 기재

3-14)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생활 수준 등이 어느 정도 동질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동질적이다	동질적인 편이다	보통이다	동질적이지 않은 편이다	전혀 동질적이지 않다
5	4	3	2	1

3-15) 거주하는 집 부근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4	3	2	1

4] 제도적 환경

4-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활동의 발생 빈도와 참여율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발생 빈도	실제 참석률 (직접 참석한 비율)				
		30% 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생활총화	_____회/(주, 월)					
인민반회의	_____회/(주, 월)					
사상학습(강연회 연구모임 등)	_____회/(주, 월)					
마을-거리 꾸리기 동원	_____회/(주, 월)					
농촌지원전투(농촌동원)	_____회/(주, 월)					
국가건설 동원	_____회/(주, 월)					

※ 발생 빈도 작성(예시) : 주 2회 개최되었을 때, 2 회/(㉠, 월)

5] 문화적응

5-1) 아래 문장을 읽고, 생각하는 바를 표시해 주세요.

	북한 문화에 대한 의견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2	나는 자식들에게 북한의 풍습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주겠다.	5	4	3	2	1
3	내 친한 친구들은 거의 북한사람이다.	5	4	3	2	1
4	나는 북한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5	나는 북한에서의 삶을 그리워한다.	5	4	3	2	1
6	북한식 말투를 쓰려고 한다.	5	4	3	2	1
7	북한 출신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5	4	3	2	1
8	나는 북한의 대중문화를 즐긴다.	5	4	3	2	1
9	나는 마음으로는 남한사람과 가까워지지 않는다.	5	4	3	2	1
10	나는 여전히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5-2) 아래 문장을 읽고, 생각하는 바를 표시해 주세요.

	남한 문화에 대한 의견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남한사회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2	나는 내 자녀들이 남한사회의 문화를 잘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겠다.	5	4	3	2	1
3	나는 남한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5	4	3	2	1
4	나는 남한문화가 훌륭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5	나는 남한사회에서 고유하게 발전된 생활양식을 받아들일 것이다.	5	4	3	2	1
6	나는 일상생활에서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려고 한다.	5	4	3	2	1
7	나는 남한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	5	4	3	2	1
8	나는 남한의 대중문화를 즐긴다.	5	4	3	2	1
9	나는 마음으로는 북한사람이 꺼려진다.	5	4	3	2	1
10	나는 남한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5	4	3	2	1

5-3) 현재 남한에 살면서 느끼는 바를 표시해 주세요.

	남한사회 적응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남한 주민들과의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5	4	3	2	1
2	남한에서 사용되는 낯선 언어(한자어나 외래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5	4	3	2	1
3	남한의 문화에 적응이 잘 안된다.	5	4	3	2	1
4	내가 잘하거나 하고 싶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5	4	3	2	1
5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편견이 있다고 느낀다.	5	4	3	2	1
6	남한사회에서는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5	4	3	2	1
7	남한주민들과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5	4	3	2	1
8	나는 남한사회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5	4	3	2	1
9	나는 남한사회의 법·제도에 잘 적응이 안된다.	5	4	3	2	1
10	나는 전반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5	4	3	2	1

5-4) 현재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바를 표시해 주세요.

	지역사회 적응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1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음 시설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					
	시장, 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5	4	3	2	1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	5	4	3	2	1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5	4	3	2	1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5	4	3	2	1
2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쉽다.					
	시장, 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5	4	3	2	1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시설	5	4	3	2	1
	병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5	4	3	2	1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5	4	3	2	1
3	내가 가고 싶은 곳은 혼자서도 찾아갈 수 있다.					
4	나는 이제 이 동네 사람이 다 된 것 같다.					
5	동네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준다.					
6	내가 사는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다.					
7	나는 이 동네에 사는 것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⑥ 지역공동체의식

6-1) 현재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구성원 의식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 않다
1	나는 우리 동네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3	나를 아는 이웃들이 적다.					
4	나는 우리 동네를 집과 같이 느낀다.					
5	우리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6-2) 현재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공동체에 대한 상호영향을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상호영향의식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 이 동네에 살아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5	4	3	2	1
2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영향력이 있다. (예: 나로 인해서 동네가 좋게 바뀔 수 있다.)	5	4	3	2	1
3	나의 행동에 대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인다.	5	4	3	2	1
4	우리 동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다.	5	4	3	2	1
5	나는 우리 동네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5	4	3	2	1

6-3) 현재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육구의 충족과 통합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동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예: 우리 동네는 공원 내 벤치가 필요할 때 만들어 준다.)	5	4	3	2	1
2	이 동네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예: 나는 이 동네에 살아서 공원, 병원 등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5	4	3	2	1
3	내가 대화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대상을 당장 동네에서 찾을 수 있다.	5	4	3	2	1
4	우리 이웃과 나는 동네로부터 비슷한 것을 바란다. (예: 우리 동네에 CCTV가 더 설치되기를 바란다.)	5	4	3	2	1
5	우리 동네 사람들은 가치관(생각)이 비슷하다. (예: 우리 동네 사람들은 새 아파트보다 공원이 좋다고 생각한다.)	5	4	3	2	1
6	우리 동네는 살기에 별로 좋지 않다.	5	4	3	2	1

6-4) 현재 동네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표시해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정서적 친밀감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5	4	3	2	1
2	나는 우리 동네에 오래 살기를 바란다.	5	4	3	2	1
3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	5	4	3	2	1
4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5	우리 동네와 이웃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5	4	3	2	1
6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5	4	3	2	1

7) 인구통계학적 정보

7-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성 ② 여성

7-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_____년

7-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7-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7-5) 현재 집에 살기 전에 몇 번 이사하셨습니까? 이사횟수 _____회

- ① 년 1회 이상 ② 2-3년에 1회
 ③ 5년에 1회 ④ 10년 이상 한 곳에

7-6)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7-6-1) 북한에서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무학 ② 소학교 ③ 중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④ 전문학교 ⑤ 대학교

7-7) 귀하는 남한에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7-7-1) 남한에서 교육 받으신 총기간은 몇 년이십니까? _____년

7-8)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 _____만원

7-9) 귀하의 경제적 지위(소득, 재산 등)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최상층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	최하층
6	5	4	3	2	1

▶ 북한 거주 시

최상층	상층	중상층	중하층	하층	최하층
6	5	4	3	2	1

7-10)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현재

- ① 근로자 ② 자영업 ③ 공무원
④ 전문직 ⑤ 학생 ⑥ 가정주부
⑦ 무직 ⑧ 기타 : _____

▶ 북한 거주 시 적어주세요 : _____

7-11) 귀하의 현재 종교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없음 ⑤ 기타 : _____

7-12)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현재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_____명
④ 배우자 ⑤ 자녀 _____명 ⑥ 기타 : _____

▶ 북한거주시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자매 _____명
④ 배우자 ⑤ 자녀 _____명 ⑥ 기타 : _____

※ ⑥기타(예시) : 친척, 친구 등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심층면담 질문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식 간 관계_심층면담

1. 동의서

- 내용 설명 후 동의 서명

2. 인적사항

- 성별, 연령, 탈북 및 입국 시기
- 남한 내 거주지역(행정동), 거주기간,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3. 심층면접 내용

(1) 거주지역에 대한 일반적 사항

- 살고 있는 지역(동네)에 대해 설명(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등)해 주세요.
- 그 동네를 선택하게 된 이유(계기)는 무엇인가요?
- 남한 내 거주기간 동안, 이사를 몇 번 하셨나요?
 - 이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

- 이웃주민들과 만나고 교류하는 장소나 시설이 있나요?
- 동네에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자주 이용하나요? 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누구와 이용을 하나요?

※ 생활편의시설 : 경로당(노인정), 도서관, 유치원(어린이집), 주민회의시설(회의·모임공간), 상업시설(마트, 식당 등), 운동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문화시설(영화관, 문화센터 등), 의료시설(병원, 약국 등), 어린이놀이터, 외부 휴게시설(광장, 공원, 산책로 등), 주차시설 등

- 북한에서 살았던 동네와 남한에서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계획요소)이 차이가 있나요?

※ 주거환경(계획요소) : 주거동 배치 형태(병렬, L, 口), 보차 체계(혼용, 분리), 내부 도로체계(격자형, 가지형, 순환형), 복도 형태(편복/중복/계단/ELEV. 홀), 외부 휴게 및 놀이공간 배치유형(분산형, 집중형, 선형, 전체녹지형), 생활편의시설 등

- 산책로·놀이터·문화센터, 보행 중심의 단지, 복도형 아파트 같은 주거환경이 이웃과 마주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주는 것 같나요?

(3) 사회적 환경 : 이웃과의 상호작용

- 남한 내에서 교류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신가요? 교류하시는 분들과는 어떻게 친

해지게 되셨나요?

- 교류하시는 분들 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분들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 남한 내에서 참여하는 모임이나 활동이 있으신가요?
 - 활동들 중에서 이웃분들과 하는 활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같이 교류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이신가요? 남북한주민 구분 없이 교류하시나요?
- 이웃들과 모임이나 활동단체(봉사단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를 만든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모임이나 활동단체인지 설명해 주세요.
- 동네에서 교제하는 이웃의 수와 교제 횟수가 북한에 살았을 때와 차이가 있나요?
 - ※ 주민 활동 : 친목 및 사교 활동(계모임 등), 취미 및 레저 활동(동호회 등), 종교 활동, 환경 정비 활동(마을 청소, 마을 가꾸기 등), 자치조직 활동(반상회 등), 봉사활동(복지시설 봉사, 방범 활동 등), 자선활동(자선바자회 등), 상호부조 활동(경로잔치 등)

(4) 제도적 환경

- 북한에서 이웃주민들과 했던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인민반 활동이 남한에는 없는 데요. 그 경험의 차이가, 남한 내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어, 동네에 소속감이 적음, 교류하고 싶으나 기회가 없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게 됨)
- 집단을 우선시 하는 북한과 개인을 우선시 하는 남한의 체제적 차이에 대한 경험이, 남한 내에서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어, 동네의 일에 잘 참여하게 됨, 혹은 잘 참여하지 않게 됨)

(5) 문화적응 : 남북한 이질성

- 남한에 들어와서 처음 거주지에 정착하셨을 때, 북한에서의 삶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예) 정치, 언어, 경제체제, 사회제도, 생활습관 등
- 북한에서의 거주지와 남한에서의 거주지는 어떻게 달랐나요?
- 남한에서의 거주지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북한에서 가졌던 삶의 양식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 남북한 이질성 중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나요?
- 북한에서의 생활양식이나 문화(음식, 언어, 놀이 등)를 유지하려는 편이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한의 생활양식이나 문화를 받아들여려는 편이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한에서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 북한이탈주민들과 어울리는 편이신가요? 남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주로 혼자 지내는 편이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남한이라는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던 과거 경험이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무엇인가요?
- 지금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주변의 환경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5) 지역공동체 형성

-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 공동체가 개인의 인생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께서는 공동체적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위해 있었으면 하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나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나요?
- 남한에서의 주거환경이 지역주민과의 공동체의식을 키우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요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남한에서 맺고 있는 어떤 사회적 관계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남한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에서는 공동체적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시나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 마무리

-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관계자 인터뷰 질문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가 인터뷰

1. 인적 사항 확인

-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 현재 일하고 계시는 시설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 이전에도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2. 현장조사 내용

- 시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교육, 공동체활동, 봉사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프로그램 참여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이용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을까요?

3. 마무리

- 현장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적인 질문 요청하게 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참여관찰 필드노트]

지역 내 주민활동 참여관찰

1. 인천 논현14단지 '2022 등대마을 너나들이 장터축제'

- 일시 : 2022. 10. 15
- 장소 : 인천 논현14단지 광장
- 활동 : 먹거리장터 봉사(새암봉사회-국밥배식 및 설거지 봉사)
- 대상 : 북한이탈주민 4명(옛 동대표, 검은 안경, 단발머리, 긴머리 묶음 중년여성)

1) 필드노트 1

#1
 구경하다가 설거지하러 관찰자는 먼저 돌아가서 그릇을 행구는데 수도꼭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하고 있는데 바로 따라와서 안경 쓴 여자가 수도꼭지를 붙잡아준다.
 안경여성 '고정이 안돼가지고'
 북한 주민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대상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도움을 줌

#2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부침개와 찜이 올라간 빵을 주고감. 설거지를 마치고 함께 나눠 먹고 빵만 두개 남음. 갑자기 한 남성과 남자아이가 오는데 남자아이가 안경여성에게 '엄마'하며 음.
 안경여성 '여보 이거 먹어봐.' 아이와 남성에게 빵을 건네줌.
 남성은 별다른 말없이 받고 아이와 함께 자리를 떠남
 안경여성 '설탕좀 넣으면 맛있을거 같은데.' 단발여성 '달던데?'
 갑자기 한 중년여성이 와서 갑자기 말을 한다.
 중년여성 '여기 마켓이 있어요 거기서 김치 사면 돼요.'
 단발여성 '아 김치요?'
 안경여성 '김치를 사가지고 와요?'
 중년여성 '김치가 맛있어요.'
 안경여성 '아, 맛있는 김치는 나도 저거 사보려고.
 별다른 말 없이 사라짐
 기존에 알고 지내는 이웃인지 알 수 없지만 봉사단 활동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오고 대화를 시도

#3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70대 남성이 말을 건다.
 남성 '이거 돈주고 사야 되는거예요?'
 안경여성 '뭘요?'
 남성 '이거 국수예요?'
 안경여성 '이거 국수 아니예요 그릇 닦은거예요.'
 단발여성 '국밥 저기 표를 받아가지고'
 남성 '그러면 이걸 뭐예요'
 안경여성 '이거 그릇닦은거예요. 설거지 한거예요'
 남성 '왜 인생을 그렇게 남 위주로 살어?'
 단발여성 (밝지만 살짝 투정부리는 느낌으로) '그러게요, 아우 그럼 좀 행복할수 있는걸 좀 주세요 그러면'
 남성 '중요한거는 잘나가. 그런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
 대화를 그만하고 싶은지 단발여성은 '그릇가지러 갔다올게' 하며 가버리고 나,
 단발여성도 따라간다.

기준에 알고 지내는 이웃인지 알 수 없지만 봉사단 활동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오고 대화를 시도 + 축제를 참여한 거주민은 북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격려함

#4

설거지 할 것을 찾으러 장소를 벗어나서 노인들이 식사하는 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무대가 잘보이는 가운데 위치에 왔다. 무대 쪽을 본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세 명이 나오고 사회자가 소개를 한다.
 단발머리여성 '드리웁니다~(사회자의 뒷말을 따라하며) 국밥 그릇이 없네'
 안경여성 '애들이 노래불러.'
 아이들이 노래를 시작하자,..
 단발여성 '하하하'
 안경여성 '애들은 뭘해도 귀여워.'
 단발여성 '어~ ' 미소를 지면서 중간에 소리내어 웃는다 '하하하'

봉사활동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축제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냄

#5

국밥을 받으러 온 여성 중에 안경여성의 지인이 있는 것 같았음. 안경여성은 중국어를 사용하며 대화함. 안경여성은 중국어를 쓰는 여성이 국밥을 받을 때 김치가 담긴 그릇을 챙겨주기도 하고 줄을 함께 서줌.

자신의 전공+중국거주경험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도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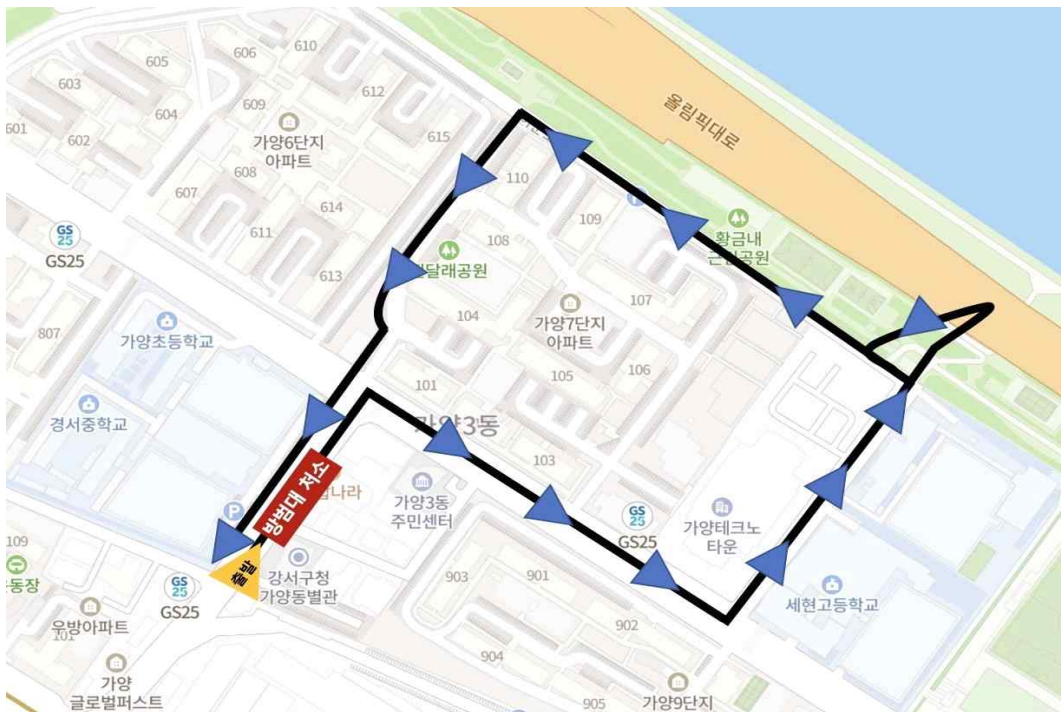
<p>#6</p> <p>행사 마치고...</p> <p>행사를 정리중에 중년여성이 관리소장에게 와서 물어봄. 봉사활동 참가자에게 사례로 물품을 나누어주는 것 같음 중년여성 '재네 좀 늦게 온 북한애들도 줘야돼요?'</p> <p>관리소장 '일했으면 공평하게 줘야지?'</p>
<p>봉사단의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 대한 다소 배제적인 행동이 투영됨</p>

2) 필드노트 2

<p>#1 축제 시작전 (11시 전 + 개회사가 끝날 때까지)</p> <p>설거지는 음식을 먹기 시작해야 나온다고 북한이탈주민분들은 축제를 구경하려 감.</p> <p><옛 동대표> 전부치기 대회에 있는 전을 시식하고 지나는 동네사람들 중 아는 지인들에게 전을 먹어보라고 권함 (인사하고 말을 나누는 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인지는 알 수 없음) 축제에 있는 부스들을 소개해줌.</p> <p>두 딸과 축제 구경 나온 북한이탈주민과 담소. 딸 중 1명이 노래자랑에 참가한다고 함.(노래자랑에 참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있다고 함)</p> <p><검은 안경> 두 자녀(초등 저학년)와 북한이탈주민 가족(남편,아내,아이 둘)이 오자 같이 축제 부스를 구경함. 중학교에서 쿠키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부스에 아이들과 같이 감. 아이들과 지인가족을 두고 봉사자리(설거지)로 감.</p> <p><전체> 봉사회 분이 3명에게 나갈 그릇을 먼저 한번 행궤야 한다고 말함 최초 3명이 그릇을 먼저 물에 한번 행궤</p>
<p>#2 축제 시작후 (개회사 이후)</p> <p>설거지 식수대 앞에 있다가 축제(노래자랑)를 구경하러 갔다가, 설거지 그릇을 수거하러 갔다가 왔다갔다 오감. 국밥 배식대 앞에 있는 봉사자 두명(남한주민)은 축제를 구경하러 가지 않고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국밥 배식을 준비함.</p> <p><중년, 긴머리> 봉사회 조끼를 입고 배식대와 식수대(설거지)를 오가며 도움 것들이 있는지 둘러보면서 북한이탈주민 봉사자들과 대화함. 봉사자들에게 간식으로 가져다 준 전과 도넛을 같이 나눠 먹음. 남한 봉사자들이 먹지 않자 먹을 수 있게 입에 넣어 줌. 김치가 맛있다고 전과 함께 김치를 나눠 먹음</p>
<p>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같이 봉사를 한다고 처음부터 일반주민 봉사자들과 융합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나누고 서로 먹여주기도 하는 등 소통의 가능성이 보임. 축제에 참석하신 분들은 주로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끼리 반가이 인사를 주고 받고 대화를 나누지만, 행사자체를 즐거워 함</p>

2. 가양동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 일시 : 2022. 12. 28
- 장소 : 강서구 가양3동 일대
- 대상 : 북한이탈주민 5명(옛 방범대장, 현 방범대장, 키 큰 중년 남성, 단발머리 여성, 노인 여성)
- 활동 :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 활동루트 :



1) 필드노트 1

#1 (순찰 전 자율방범대 처소에서)

활동시간이 되자 대원들이 하나 둘 처소로 들어옴

<현 방범대장> 날씨가 춥다며 대원들에게 드릴 유자차를 타고 먹으라고 권함. 연구진들에게 내부 시설을 소개해줌 <옛 방범대장> ‘여기 이 난로로 고구마 구워먹거나 떡국 데워먹어도 좋아요’. 대원들이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활동복을 꺼내입음. <노인 여성> ‘아유 늦어서 죄송해요 깜빡 잠이들어버렸네’하며 들어오는 노인 여성을 보며 <대원들> ‘깜빡 잠이 들었구만’ 하며 맞이해줌

익숙하게 처소 내 시설을 다루는 대원들과 서로를 친근하게 대하고 맞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음

#2 (순찰 중)

방법대 활동 중인 연구진 그리고 대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순찰을 돌고 있음.

<연구진> ‘방법대 활동이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순찰하며 동네도 이곳저곳 살피고 대원 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운동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키 큰 중년 남성> ‘저는 이 활동을 해서 너무 좋아요, 사실 이 시간이(활동 시간) 퇴근하고 집와서 딱 쉬는 시간인데 집에서 TV나 보고 그러는 것보다 일부러 나와서 이야기도 하고 순찰도 하는 게 훨씬 좋더라구요. 저는 그래서 방법대 활동 꼭 나오려고 해요’

<노인 여성> ‘저는 방법대 활동을 한지 1년정도 밖에 안됐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옷도 딱 멋지게 갖춰입고 하니깐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동네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돌아보니 동네에 대한 애정도 더 크게 생기고.. 오래오래 계속 하고 싶어요.’

그 밖에도 순찰활동을 하며 대원들끼리 지역에 대한 정보, 취업정보 등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얘기를 나눔.

자율방법대 활동을 통해 소속감,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방법대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음. 활동을 수행하며 운동이 되기도 한다면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과 활동과정 중 발생하는 교류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도 맺어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3 (순찰이 끝나고 회식자리)

<옛 방법대장> ‘비둘기 고기 먹어봤어? 고기 중 비둘기 고기가 제일 맛있어’

<현 방법대장> ‘아 저는 못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키 큰 중년 남성> ‘저도 아버지께서는 드시는 모습을 봤는데, 집에서 비둘기를 키워서 어린 마음에 차마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북한에서의 기억, 추억들을 공유함.

<단발머리 여성> ‘오늘 활동 오길 너무 잘했다 회식도 하고 너무 좋네요’

<노인 여성> ‘그러게 말이야. 자느라 못왔으면 후회할 뻔 했어’ 자율방법대 활동에서 선물 받은 이야기를 하며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함. 술 한 잔하며 회포를 풀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대원들.

정기적인 회식을 통해 활동하느라 수고했다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대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음. 회식자리를 가지며 자연스레 한국에서의 생활의 어려움, 북한에서의 기억 혹은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원들의 모습. 이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주며 유대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